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32호 【루계 제24380호】 주체102(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8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믿음을 인생의 값높은 영광과 행복으로 간직하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길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보위전사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를 통하여 인민군보위기관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되였다고 하시면서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중국보도사는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고 하면서 공연이 끝나자 그이께서는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가 진행된 소식,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하고있는 김정일군사연구원을 돌아보신 소식도 전하였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새로 꾸리고있는 만경봉체육단의 축구훈련장을 돌아보신 소식,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올렸다.

본사기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8일 이딸리아 로마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로베르또 가브리엘레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멸의 업적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널리 소개선전하기로 결정하였다.

* *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9일 끼르기즈스딴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아. 우쑤쁘바예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각하회고 뽈스까위원회가 15일 와르샤와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뽈스까조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스와보이 야누아릭 구좁스끼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소개선전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천출명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인사들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 네팔, 베닌에서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강연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도이췰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회고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이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여왔다.

김정은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계시기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할것이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조국과 혁명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표시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선군정치로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신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고 말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라고 그들은 확언하였다.

베닌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 사회주의당의 고위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력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인민이 그이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원히 높이 모신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네팔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에 즈음하여 17일 쿠웨이트민족사업집 판장인 쿠웨이트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유세프 알 아미리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김정일대원수각하께서 서거하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대원수각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은 강위력한 반제자주의 성새로 솟아올랐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선도자적역할을 할수 있었다.

우리는 조선방문을 통하여 공화국이 어떻게 외부세력의 위협공갈과 압력, 제재를 물리치면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는가를 직접 목격할수 있었다. 오늘 조선은 희세의 선군령장 김정은원수께서 계시여 더욱더 강한 나라로 되였다.

김정은원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 김정일대원수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인민사랑의 정치로 조선의 위대한 력사를 수놓으신다.

조선은 일심단결의 나라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신 일심단결의 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우리는 조선의 일심단결이 세계를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들을 창조하리라고 확신한다.

천출명장 김정일대원수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하며 그이의 영생을 기원한다. 아울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에 즈음하여 18일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수십성상 조선혁명과 세계사회주의운동을 이끄시면서 단 한번의 실패나 좌절, 탈선도 없으시였다. 그이께서 지니신 정치철학은 자주위업의 지도사상으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주체사상이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시면서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시였다.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과학성, 그 승리의 필연성을 밝힌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진보적인류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사회주의조선을 그 어떤 제국주의대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보루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령도자는 가장 독창적인 정치방식을 구현한분이시다. 그이의 선군정치는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웠을뿐아니라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까지 마련할수 있게 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나라의 존엄과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가고있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정일애국주의를 피끓는 심장에 소중히 간직하고 더 많은 일을 하자

3중3대혁명붉은기단위들이 총진군의 앞장에 섰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이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는데 모를 박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 세폭의 붉은기가 총진군대오에 더욱 힘차게 나붓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양방직기계공장 3중3대혁명붉은기 공구직장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으며 26호선반을 비롯한 혁명사적물들을 정성껏 관리하여 지난 10여년동안 150여만명의 참관자들을 교양하는 사업에 이바지하였다.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연구사들과 협력하여 6대의 공작기계와 열처리설비들을 CNC화하여 제품의 정밀도를 10배로 끌어올리였으며 유연창대직기 주축조립지구를 비롯한 16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125%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주체101(2012)년 10월 4일에 26호선반에 로력영웅칭호가 수여되였다. 지난해 7월에는 8대의 양말포장기를 짧은 기간에 생산보장하여 평양양말공장현대화에 기여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직장의 안팎을 새롭게 꾸리고 350㎡의 면적에 새 품종의 잔디와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구내의 면모를 일신시키였다.

3중3대혁명붉은기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당조직에서는 선군시대의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알곡증산성과로 보답하기 위하여 포전방송, 이동속보 등 화선식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농장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우량품종을 적극 받아들이고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비롯한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과학적으로 시비함으로써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논벼의 생육기일을 촉진시키였으며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여 로력과 농약을 절약하면서도 알곡 정보당 소출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분조,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그들의 생산의욕을 불러일으켜 올해에 높은 알곡소출을 내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농장의 마을과 살림집, 공공건물들을 알뜰히 거두고있을뿐아니라 편의봉사시설들에 대한 정상관리, 정상운영을 잘하여 농장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다.

3중3대혁명붉은기 안주절연물공장 당조직에서는 지난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모자이크로 형상하여 청사정면에 정중히 모시고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종업원들이 깨끗한 충정을 지니고 일하게 하고있다.

최첨단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난 5년간 절연와니스생산공정에 콤퓨터에 의한 자동조종체계를 도입하고 이산화규소나노분말에 의한 절연물생산방법을 비롯한 52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절연물생산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였다.

축산기지와 양어장, 온실을 비롯한 후방기지를 잘 꾸리고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공장을 원림화, 수림화하였다.

전천음료가공공장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정류탑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제품의 질을 국가품질기준에 도달시키였다.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이후 지난 5년간 매월, 매분기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사출직장, 수풍발전소 1발전직장 등 많은 단위들이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이후에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이 거둔 성과와 경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올해전투결속을 위한 최후돌격전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다시마모내기에서 높은 실적 기록
각지 바다가양식사업소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푸는 좋은 방도의 하나입니다.》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바다나물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기세를 올리고있다.

지금 동서해의 바다들에서는 다시마모내기가 한창이다. 날씨조건이 불리하지만 각지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최적기에 다시마모내기를 끝낼 목표밑에 실적을 높이고있다.

전국적으로 다시마모내기실적은 70%계선에 들어섰다.

부포, 옹진,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를 비롯한 서해안의 수산부문에서 만단의 준비를 갖춘데 기초하여 매일 많은 면적에 충실히 자래운 다시마모들을 내고있다.

드넓은 양식장들에서는 다시마모내기전투를 패기있게 해나가면서 화선식선동을 힘있게 벌리는 일군들의 열정에 넘친 모습도 보이고 전마선을 타고 모내기를 재치있게 해나가는 양식공들의 미더운 모습도 펼쳐져 바다의 풍치를 더욱 돋군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결사관철할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 동해안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일손에도 불이 일고있다. 이들은 다시마모내기실적을 높이면서 다시마모가 빨리 자랄수 있게 여러가지 생육조건을 잘 보장해주고 양식장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혁신의 앞장에는 부포, 옹진바다가양식사업소와 함경남도수산관리국이 섰다. 이곳 일군들은 중요단위들을 맡고 현지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대중을 혁신창조에로 불러일으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단천수산사업소에서는 바다가양식에 필요한 중요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달라붙었다.

련관단위들과 각지 근로자들이 풍요한 다시마작황을 마련하는 사업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적극 도와나섰다.

떼줄과 띄우개보장을 맡은 단위들에서 맡은 과제수행을 위해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고있으며 각지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부착줄을 마련하여 보내주고있다. 이 사업에서는 함경남도가 모범적이다.

건강에 좋고 맛좋은 부식물인 바다나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줄 열의에 넘쳐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는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다시마모내기실적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성, 중앙기관들에서 탄광들을 힘있게 지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에서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인민경제의 생명선인 석탄전선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서 국가계획위원회, 인민봉사총국의 일군들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곳 정무원들은 당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할 열의드높이 각종 설비와 자재들을 마련하여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보건성, 국토환경보호성, 채취공업성에서도 서창청년, 덕성, 형봉탄광을 비롯한 덕천지구의 탄광들에 많은 부속품 등을 보내주어 탄부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식료일용공업성, 수산성, 잠업비단지도국의 일군들도 석탄생산에 필요한 공구와 부속품들, 로동보호물자들을 마련해주었다.

2.8직동청년탄광에 나간 무역성, 건설건재공업성의 일군들은 막장에서 탄부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그들이 경제강국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힘있게 고무하였다.

기계공업성, 수매량정성에서는 순천지구의 탄광들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상업성, 국가가격위원회 일군들의 물심량면의 지원은 북창지구탄광들의 석탄생산실적을 올리는데 기여하고있다.

전자공업성, 국가해사감독국, 도시경영성, 무역은행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탄광지원사업을 잘하고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성의있는 지원에 고무된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할 일념안고 증산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중앙식물원의 종업원들이 애국의 마음안고 수종이 좋은 나무모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통나무생산성과 계속 확대
자강도림업관리국에서

자강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림업관리국아래 갱목생산사업소, 림산사업소들의 일군들은 로력과 륜전기재들을 산판들에 집중시켜 동발나무와 통나무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관리국적인 동발나무, 통나무생산실적이 훨씬 높아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림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림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림업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국의 일군들은 다음해 1.4분기동안에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수행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림업성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연유와 기계톱, 쇠바줄과 자동차, 뜨락또르들의 운행에 필요한 쇠사슬을 마련하여 갱목생산사업소들과 림산사업소들에 제때에 공급해주었다. 관리국에서는 갱목생산사업소, 림산사업소들에서 공무, 건설, 생필을 비롯한 보조부문의 로력으로 생산소대를 무어 그들도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에서 한몫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관리국아래 갱목생산사업소, 림산사업소들의 수백개 생산소대들에서 지금 눈덮인 산판들을 타고앉아 더 많은 동발나무, 통나무를 생산하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탄광들에서 요구하는 동발나무생산을 앞세우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관리국에서는 일군들을 갱목생산사업소들에 내려보내여 그들이 동발나무생산을 함께 책임지도록 하고있다. 갱목생산사업소들을 맡고 내려간 관리국의 일군들은 동발나무생산계획을 일별, 월별로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 흰눈덮인 산판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그리고 관리국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즉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관리국에서는 수십명의 일군들로 돌격대를 뭇고 동발나무생산의 큰 몫을 맡고있는 고인갱목생산사업소의 운포작업소산판에 올라 림산로동자들의 동발나무생산을 힘껏 돕고있다.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에서는 강계, 송원, 위원갱목생산사업소, 랑림, 룡림림산사업소들이 관리국적으로 앞장서나가고있다.

강계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은 자체의 힘으로 많은 기계톱부속품을 마련해놓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작업소들에서 통나무생산의 첫 공정을 지켜선 나무베기공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기계톱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나무베기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송원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은 작업소들의 산지갱목생산량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나무베기를 앞세우는것과 함께 대용연료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높여 철도역에 많은 동발나무를 실어내고있다. 위원갱목생산사업소에서도 더 많은 갱목을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주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고인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도 든든한 공무기지에 의거하여 림철기관차의 실동률을 높여 마감나르기실적을 계속 올리고있다.

랑림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눈이 많이 내려쌓인 유리한 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면서 베여놓은 통나무를 산지나무터들에 쌓고있다. 특히 삼포작업소의 로동자들은 뜨락또르, 자동차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면서 산지통나무생산에서 눈부신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룡림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맡겨진 통나무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관리국에서는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에 진입한 로동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갖가지 로동보호물자들과 채벌수단들, 륜전기재들의 부속품을 원만히 보장하고 산지합숙들에 후방물자들을 보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에도 관리국에서는 많은 량의 솜신발을 마련하여 산판의 로동자들에게 공급해주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국의 일군들은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바람을 일으켜주시여

《마식령속도》창조의 불바람속에 우리 조국은 전변과 번영의 모습으로 일신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이 자랑찬 전변!

우리의 눈앞에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이시였던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찬란한 모습이 펼쳐지고있다.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웅대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였던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속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는 빨찌산식의 강행군천리길을 이어가시며 강성국가의 높은 령마루에로 향한 새로운 대고조시대를 펼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뜨겁게 돌이켜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세월 바라고바라던 꿈, 세계를 굽어보며 존엄높고 행복하게 살려는 민족사적념원을 현실로 실현하는 성스러운 애국위업인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사회주의강성국가에로 향한 대고조진군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우리의 마음은 천리마의 고향 강선으로 끝없이 달린다.

주체97(2008)년 12월 24일, 우리 조국의 뜻깊은 날들중의 하루인 이날에 력사의 땅 강선에서 시대의 폭풍을 일으키며 세월을 주름잡게 하는 강위력한 대고조진군의 불길이 타올랐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이 단 몇달동안에 일떠세운 초고전력전기로를 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은 혁명적열정에 차넘치시였다.

현대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하는 이 전기로의 번뜩이는 백광속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난을 헤치며 천백배로 강해진 우리 인민의 힘을 보시였고 그 힘에 떠받들려 산악처럼 일떠서는 조국의 기상을 온몸으로 느끼시였다.

잊지 못할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다음해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올려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이 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소리치며 힘차게 내달려야 전국의 로동계급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를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에 타오른 강선의 봉화,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내 조국땅에 대고조의 열풍으로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애국의지에서 뿜어져나온 위대한 불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강선의 봉화와 더불어 온 나라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속에 부글부글 끓었다.

이 장엄한 불길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세계에 떠받들리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은 최대로 발양되였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굳게 믿으신것은 바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 애국정신이였다. 그리고 준엄한 혁명투쟁의 년대들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과 수령을 따라 억세게 키워온 필승불패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확신이였다.

혁명의 한길에 떨쳐나선 인민의 정신력은 령도자의 사상과 뜻, 불굴의 기상을 닮는다.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의 구절구절이 천만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김일성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정신력을 지닌 민족이며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은 우리 인민의 무한대한 사상의 힘, 위대한 정신력에 의하여 일떠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다,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강의한 정신력으로 력사의 시련을 헤치며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여온 인민은 없다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새로운 대고조진군길에서 우리 인민이 높이 발양해야 할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이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에서 높이 발양하여야 할 김일성민족의 제일가는 정신력은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받들어 한몸바쳐나서는 일심단결의 정신력입니다. …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받들어 한몸바쳐나서는 일심단결의 정신력, 바로 여기에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떠미는 정신력의 근본핵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나라의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심어주신 정신력이야말로 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였고 승리의 신심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대고조전투장들을 찾으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내 조국땅에 시대의 정신, 시대의 기상, 시대의 봉화가 세차게 나래치게 하였다.

력사적인 12월호소를 받들고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이 일던 주체98(2009)년의 새해진군길은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시찰로부터 시작되였다.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쇠철갑대오의 훈련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으로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강철의 령장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절감하였다.

두해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외국방문을 끝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시는 길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다.

희천1호발전소 룡림언제건설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광에는 기쁨의 미소가 넘쳐흐르시였다. 장자강상류의 심심산중에 만년대계의 룡림언제가 솟구쳐올라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던것이다. 군인건설자들은 선군혁명의 주력군답게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질풍같이 내달려 기존상식으로는 10년이상 걸려야 할 제일 어렵고 방대한 룡림언제 콩크리트치기를 700여일동안에 끝내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조선의 기상인양 하늘높이 솟아오른 거창한 룡림언제를 바라보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민군군인들이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낀것은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는 놀라운 성과라고 하시면서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이야말로 말로써가 아니라 육탄으로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해나가는 화선용사들이며 강성대국승리의 새날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대고조시대의 제일기수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최상의 믿음과 평가속에 우리 인민군대는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하며 희천발전소뿐만아니라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자랑찬 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울수 있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선군의 복속에 우리 조국은 강성국가건설의 원대한 목표와 리상을 마음껏 설계하고 현실로 펼쳐갈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총진군대오의 앞장에 서시여 공장에서 전선으로, 전선에서 농장으로, 다시 전선에서 건설장으로 달리시며 조국땅에 사회주의경쟁바람, 기적의 바람을 일으키시였다.

사회주의경쟁은 우리 조국에만 있을수 있는 승리의 기상이다, 경쟁하라, 경쟁해야 발전한다고 거듭 말씀하시며 인민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대중적경쟁운동을 통하여 본보기를 적극 일반화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참으로 경이적인것이다.

사회주의경쟁의 불바람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현지지도단위들에서부터 타올랐고 전국도처에서 승벽을 다투는 경쟁열풍속에 사람도 시대도 혁명의 요구에 맞게 변모되였다.

정녕 휘황찬란한 래일을 향하여 빨찌산식강행군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에 의하여 경이적인 사변들이 승리의 꽃보라인양 련이어 터져나왔다.

선군조선의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며 솟구쳐오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 CNC기술에서의 최첨단돌파,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생산, 사회주의대지에 선군10경으로 떠오른 미곡과 선군11경을 노래하는 원흥, 날바다를 가로막아 나라의 토지를 넓힌 대계도의 천지개벽,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간 신창의 기적, 선군시대의 문명을 자랑하며 일떠선 건축물들과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 축산기지들…

인민의 꿈이 실현되는 이 사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우리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함남의 불길을 잊을수 없다.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데서 함남도가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한해에만도 도를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비날론과 비료, 지열설비와 각종 대상설비들, 광물과 유색금속, 과일과 알곡생산을 비롯한 경제사업전반을 근본적으로 추켜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장정을 떠나 함남의 불길을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이 나날의 현지지도와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참전자로서 조국번영을 위하여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한 함남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값높이 평가해주시며 그들모두를 몸소 평양으로 불러주시여 성대한 연회도 베풀어주신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치신 대고조강행군길을 따라 이 땅우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결실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식령속도》창조에로 부르신 애국의 호소가 천만군민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성기에로 부르고있다.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대고조의 전통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최후승리를 다그쳐나가는 영웅적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림정호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제일의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시려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그 길에서 더없는 보람과 락을 찾으신 어버이의 한평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입니다.》

주체100(2011)년 12월 4일은 일요일이였다.

그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전변된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시였다.

삼가 인사를 올리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유희시설들을 돌릴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돌릴수 있다고 감격에 넘쳐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은 개선청년공원유희장 관리운영정형을 직접 료해하여보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고 각근히 이르시였다.

유희장의 관리운영실태를 하나하나 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일군들은 유희장의 유희시설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있으며 빵집을 비롯한 급양봉사망들도 잘 운영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그들의 말을 기쁨속에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희시설들이 있는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유희시설료금은 얼마인가 등을 세세히 알아보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러 한 일군은 격정에 넘쳐 우리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요일 추운 날에 또다시 우리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아주시여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것은 그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사랑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며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이 자신의 락이라고 흔연히 말씀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희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유희시설들을 친히 가동시켜보도록 하시고 일군들이 모두 유희시설들을 직접 타보게 하시였다. 그러시고 이곳 일군에게 인민들이 많이 오는가,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시고 인민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못내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전그네며 관성비행차, 급강하탑, 3중회전반 등의 운영정형도 세세히 알아보시였다.

그날 일군들로부터 이름난 빵음식을 만들어 눅은 가격으로 봉사해주니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의 불장식을 두고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 와서 유희시설들도 타고 희한하게 불장식을 한 야경도 구경하면서 강성국가의 대문에 들어선것 같다고 말하며 정말 좋아한다는데 인민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니 자신의 마음도 즐겁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정녕 인민들의 기쁨은 우리 장군님의 기쁨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일군들에게 다시금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의도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인민의 심부름군인 우리 일군들이 얼마나 이악하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관리운영하는 모든 단위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일을 더 잘하여 이곳에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계속 크게 울려퍼지게 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추운 겨울날에도 또다시 유희장을 찾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곳곳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그토록 마음기울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꽃피울 맹세가 뜨겁게 불타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해 추운 겨울날의 일요일도 이렇게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김인선

절세의 위인들의 손길아래 조합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인민의 행복한 문화생활을 마련해주시던 나날에

주인이 바뀐 지팽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해 훌륭한 명승지들을 꾸려주시려고 칠보산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날 현지지도의 마지막로정으로 개심사를 돌아보시였다. 개심사에 들어서신 장군님께서는 원상그대로 일떠세운 만세루복구정형이며 절간단청에 대하여 료해하시다가 다래넝쿨의자와 두개의 지팽이를 가리키시며 저것은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동행한 일군이 이곳 관리원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칠보산을 다시 찾아주시면 사용하시라고 만든 소박한 지성품들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지성품에 깃든 인민들의 소원을 헤아리시는듯 손수 지팽이를 짚어보시다가 자신께서 등산을 할 때 리용하라고 준비해놓은 지팽이 두개는 오늘 받은것으로 하고 절간에 선물로 남겨놓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등산하러 오는 우리 인민들에게도 이런 지팽이를 만들어주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자신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마련해올린 지팽이를 두시고서도 인민들부터 생각하시는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품고계신 소원과 결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십여년전 어느 한 군에서 새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와 문화주택들을 돌아보시였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부도 훌륭히 꾸려진 살림집을 돌아보시며 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여러모로 건설을 잘하였다고, 이런 집을 지은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준다고 만족스럽게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이곳을 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 돌아본 새 문화주택마을을 정말 잘 지었다고, 우리 농민들이 잘사는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거듭 만족해하시며 갖출것을 다 갖춘 그런 좋은 집을 우리 인민들모두에게 주려는것이 자신의 소원이며 결심이라고, 자신께서는 마을을 떠나오면서 그 결심을 꼭 실현할것을 다시한번 마음다졌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어버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은 그이의 숭고한 념원을 이 땅우에 아름다운 현실로 꽃피울 맹세로 가슴을 세차게 끓이였다.

달라진 음식상식소개판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다심한 사랑은 어느 한 농민휴양소의 상식소개판에도 깃들어있다.

몇해전 함경남도의 한 단위에서 새로 건설한 농민휴양소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식당의 벽면에 걸려있는 음식상식소개판을 자세히 보시다가 지적의 말씀을 주시였다.

상식소개판에는 이름모를 음식들이 많이 올라있는가 하면 또 어떤것은 같이 먹으면 나타날수 있는 증세에 대해 원리적인 설명이 없는것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상식을 소개할바에는 지금처럼 하지 말고 콩나물기르는 방법이나 김치담그는 방법같은것도 소개할수 있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휴양하러 왔다가 한가지 상식이라도 정확히 배워갈게 아닌가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음식상식소개판을 보시면서도 그것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우리의 실정과 농민들의 생활에 맞게 만들도록 다심하게 가르쳐주시는 인민의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에 일군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본사기자 한영민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이 밝힌 정치리론의 독창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에서 선군정치리론의 독창성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선군정치가 가장 위력한 정치이며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된다는 정치리론을 새롭게 밝혀주고있습니다.》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다. 사상과 리념은 정치를 통하여 실현되며 정치는 인민대중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이다.

정치리론은 정치의 기초이다. 어떤 정치리론에 기초하고있는가에 따라 정치의 과학성과 혁명성, 생활력이 결정된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이 밝힌 정치리론은 선군혁명의 원리와 원칙을 구현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가는 혁명령도방식, 정치방식에 관한 리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성상의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정립체계화하신 선군정치리론은 그 독창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부각되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이 밝힌 정치리론의 독창성은 우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한것이다.

정치방식은 정치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체계, 방법의 총체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옳바른 정치방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성패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정치방식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된다.

종래에는 정치가 경제제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기성리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사회주의정치를 실현하는 방식문제가 쉽게 해결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정치는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는 선군정치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것은 사회주의정치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인류정치사에는 군사를 중시하는 정치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정치들은 어느것이나 다 군대를 한갖 정치의 수단으로만 여겼을뿐 정치를 주도해나가는 세력으로 보지 못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보아도 혁명과 건설에서 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바로 밝히지 못하였으며 특히 군대를 혁명의 중요한 정치적력량으로 보지 못하였다. 맑스—레닌주의혁명리론에서는 혁명에서 노는 총대, 군대의 역할에 대하여 주로 사회혁명의 시기와 승리한 혁명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군사적역할에 국한시켰다. 기성리론들에는 선군이라는 말자체가 없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총대와 혁명, 군사와 사회주의위업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새로운 혁명원리와 혁명원칙을 구현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은 자주력량과 지배주의세력,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게 되는것만큼 군사중시, 군사선행은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과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 군사선행, 선군후로의 원칙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고 그를 구현한 선군정치를 펼치시였다.

선군정치는 혁명의 근본리념, 근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치방식이며 사회주의가 자기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존재하고 발전해나가도록 하는 인덕정치,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치방식들의 성과적실현을 확고히 담보해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됨으로써 인류정치사에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리념과 원칙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이 밝힌 정치리론의 독창성은 또한 선군정치실현을 담보하는 사상정신적요인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해명한데 있다.

새로운 시대는 그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혁명정신에 의하여 추동되고 전진한다. 시대의 혁명정신은 다름아닌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의 혁명정신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에는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이 선군정치의 근본바탕, 다시말하여 선군정치의 전면적확립과 그 성과적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사상정신적요인이라는것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혁명정신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에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인민군대의 본성과 가장 전투적인 집단으로서의 우리 군대의 혁명적기질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지난 시기의 사회주의운동사는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에 의하여 전진해온 력사이다. 자본의 철쇄를 마스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은 비상한 견인력을 발휘하여왔으며 그에 기초한 사회주의정치의 위력도 남김없이 떨쳐졌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는 각이한 사회적집단들이 참가하며 그들의 지위와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사회계급적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반제군사전선이 우리 혁명의 기본전선으로 되고있는 오늘 혁명적군인정신은 시대를 대표하는 투쟁정신으로 되고있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혁명정신의 최고표현이다. 여기에는 철저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성이 체현되여있으며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증오심, 무자비한 섬멸의 정신이 차넘치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시대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떨치게 하는 전투적기치로서 선군정치실현을 담보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요인으로 되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천만군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왔으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여왔다.

혁명적군인정신이야말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운 백승의 혁명정신이며 이런 사상정신적무기를 근본바탕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선군정치의 위력은 무궁무진하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이 밝힌 정치리론의 독창성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령도체계와 령도예술에 관한 리론을 새로운 높이에서 발전풍부화한데 있다.

주체의 령도체계와 령도예술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의하여 마련되고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온 우리식의 독창적인 령도방법이다.

혁명적령도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령도체계이다. 사회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은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문제가 혁명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로정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혁명대오를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묶어세워온 자랑스러운 로정이다. 우리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오직 백전백승의 한길로만 전진시켜왔다.

우리 당의 령도체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령도체계로 더욱 발전완성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책동으로부터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지키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틀어쥐고 선군정치를 펼치시였으며 국방위원회의 지위를 높이고 국방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국가사회생활을 선군의 원칙에서 조직하고 관리운영해나가는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시였다.

선군령도체계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반적혁명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도체계,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이다. 수령이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틀어쥐고 그 주도적, 선봉적역할을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며 국방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국가사회생활을 선군의 원칙에서 조직하고 관리운영해나가는 정치체계가 튼튼히 확립됨으로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혁명적원칙성과 창조성, 령활성을 가장 능숙하게 결합시킨 주체의 령도예술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선군장정의 길에서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오신 선군령도예술은 우리 조국이 치렬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인민군대를 핵심, 본보기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변혁을 창조할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선도자적역할을 높여 전체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시였으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지니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불러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시대의 발전, 변화되는 환경과 정세에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면서 령활무쌍한 전략전술과 천변만화의 수법, 대담한 공격전으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가 있었기에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력이 만천하에 떨쳐지게 되였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이 밝힌 정치리론에는 이밖에도 선군정치의 3대혁명력량에 관한 리론이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다.

주체의 혁명적당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 혁명대오의 일심단결, 이 3대혁명력량이 선군정치의 기둥, 주체혁명위업의 위력한 추진력이라는 리론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우리 당의 선군정치리론이 더욱더 완벽하고 혁명적인 리론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리철

총돌격전의 기세드높이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간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전투장에 나래치는 창조와 비약의 열풍

평양시려단 돌격대원들

평양시려단이 맡은 희천9호발전소건설장에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요구라면 단숨에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 인민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조국의 면모는 날을 따라 변모되여가고있습니다.》

얼마전 언제공사의 혁혁한 성과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곳 건설장에 최근 또다시 취수구도류벽과 옹벽, 취수구무넘이구조물과 수문기둥, 수문보관실들이 솟아나고 물고기길이 형성되여 건설 첫해인 올해에 발전소우안의 면모가 완연히 드러나게 되였다.

려단에서는 10월에 건설장적인 사회주의경쟁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한데 이어 이달에 들어와 총결사전을 벌림으로써 최근 한달반 남짓한 기간에 굴착은 6만 2 000㎥, 성토는 3만 8 000㎥, 콩크리트치기는 1만 3 000㎥나 수행하여 건설장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희천9호발전소건설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끼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언제나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은 건설실적으로 받들어 하루빨리 청천강을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려는 평양시려단 전체 전투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과 헌신적인 일본새가 낳은 귀중한 결실이다.

우안의 언제공사를 다그치던 려단이 발전기실의 구조물공사에 진입한것은 지난 9월말이였다. 장마피해를 가시며 언제바닥과 보강판공사를 끝낸 후 5개의 수문기둥공사를 다그치던 그때 려단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하나의 감격적인 사실에 접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관련한 강령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친히 평양시려단의 투쟁성과를 평가해주시였다는 소식이였다.

자기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에 더 높은 공사실적으로 보답할 격정의 파도가 온 건설장에 차고넘쳤다.

백종원, 최용수동무를 비롯한 려단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이 최대로 분출된데 맞게 방대한 올해공사과제를 훨씬 앞당겨 수행할 목표밑에 언제수문기둥공사는 물론 발전기실의 거의 모든 구조물공사를 동시에 밀고나갈 대담한 작전을 세우고 이 사업을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더 높은 건설성과로 보답하자.

려단의 각 대대들에서 최대한의 예비탐구를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굴착기, 혼합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의 부분품들이 짧은 시일안에 새로 확보되였다.

발전기실의 구조물공사를 언제공사까지 내밀며 이제 남은 2개월안에 끝낸다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려단에서는 공사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먼저 일부 력량이 취수구도류벽과 옹벽, 수문보관실 등 여러 구조물들의 기초굴착을 선행하게 하는 한편 거의 모든 대대들을 투입하여 취수구바닥공사를 와닥닥 해제끼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였다.

려단정치일군인 최용수동무는 희천발전소물길굴공사에서 작업갱수를 최대로 늘여 작업전선을 넓힌 경험적인 사실을 전투원들에게 해설해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에로 건설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취수구바닥공사가 불과 2일동안에 질적으로 수행되는 기적이 창조되고 각 대대들에서 콩크리트치기작업에 일제히 진입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우안지대의 구조물공사는 결코 순조롭게만 진행되지 않았다.

전투가 고조를 이루던 어느날, 물고기길굴착공사에 떨쳐나선 중구역대대 돌격대원들앞에는 뜻밖의 난관이 조성되였다.

하지만 온몸을 깡그리 불태워서라도 공사속도를 무조건 보장하여야 한다며 대대지휘관들인 오경석, 김인호동무들과 희천발전소물길굴공사때부터 착암명수로 소문떨쳐온 김성진, 김원경, 홍영남, 리유일동무들이 투쟁의 앞장에 섰다. 그뒤를 이어 모든 돌격대원들이 무릎을 치는 물속에 뛰여들어 뚝막이구간을 더 좁게 형성하면서 힘찬 맞들이전, 질통전을 벌려나갔다. 이들은 이날 홰불을 추켜들고 새벽까지 교대별로 전투를 중단하지 않았다.

리광룡동무를 비롯한 보통강구역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한개의 언제수문기둥공사에 이어 열흘동안에 토언제접두부공사를, 련이어 수문보관실콩크리트치기공사를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첫 구간의 취수구수문기둥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수시로 변하는 공사정황에 맞게 물고기길공사에서도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강동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은 희천발전소물길굴공사때처럼 흐름식콩크리트치기방법의 경험을 살려 휘틀조립, 혼합물생산과 운반, 타입의 매 공정들을 치차처럼 맞물리게 하면서 20일 남짓한 기간에 취수구도류벽공사를 선참으로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이들만이 아니다.

리종철, 명성준동무를 비롯한 룡성구역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수직광차에 의한 혼합물운반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언제수문기둥공사를 더욱 박력있게 내밀어 11월 중순 여러개의 언제기둥정점에 승리의 기발을 꽂았으며 력포구역대대의 전투원들도 2개의 언제수문기둥공사를 마감단계에 올려세움으로써 려단적인 공사추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희천정신을 창조할 열의드높이 헌신적인 건설전투를 벌려가는 이런 결사관철의 전위투사들, 애국충정의 대오가 있기에 희천9호발전소건설에서 시대를 경탄시키는 눈부신 기적이 창조되고있는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류기풍

자강도려단에서

자력갱생의 열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닥친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맞받아나가야 합니다.》

자강도려단이 맡은 희천3호발전소건설장에는 이곳 돌격대원들의 완강한 투쟁기풍과 혁명적인 일본새를 보여주는 나루배형식의 철선이 있다. 이것이 려단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누구나가 정담아 부르는 골재운반선이다.

청천강의 거센 물결을 가로지르며 오가는 이 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올해 9월초, 려단에서는 취수구뿐아니라 방대한 취수탑건설공사목표까지 세워지면서 더 많은 골재의 신속한 운반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골재운반을 맡은 전천군대대 전투원들이 아무리 주야전투를 벌리며 운행회수를 높인다 해도 높이 내세운 콩크리트치기과제를 수행하자면 결정적으로 골재운반을 앞세워야 하였다.

골재채취장이 공사장 맞은켠에 있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려단장 김선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적재량이 큰 배를 새로 제작할것을 결심하였다.

《동무들, 방도는 골재운반선을 크게 만들어쓰는 길밖에 없소. 이제부터 자체의 힘과 기술로 배를 새로 제작하고 필요한 골재를 운반함으로써 불가능을 모르는 희천용사의 기질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줍시다.》

려단장의 이 말에 모두가 합세해나섰다.

이들은 여러곳을 오가며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면서 철판을 마련한데 기초하여 절단과 용접전투에 달라붙었다.

이들의 완강한 노력에 의하여 불과 2일동안에 종전보다 7배의 적재능력을 가진 골재운반용철선이 제작되여 전투승리의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종전의 배보다 상차와 하차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맞게 려단에서는 골재운반을 맡은 대대전투원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동하여 이 배의 왕복회수를 더욱 늘이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게 짜고들었다.

골재를 강대안까지 운반하고 거기에서 다시 맞들이와 질통으로 콩크리트치기가 진행되는 장소까지 옮겨가야 하는 불리한 속에서도 작업시간을 최대로 줄이기 위한 려단돌격대원들의 이악한 투쟁에 의하여 배의 하루평균 왕복회수는 15~20회로 늘어났다.

하여 이 배 한척만으로도 하루최고 50㎥의 골재를 운반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수천㎥의 골재를 수송하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여기는 황해남도려단이 맡은 희천5호발전소건설전투장이다.

우리는 지금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려단의 언제공사장을 바라보며 이 소식을 전한다.

태고적부터 사품쳐흐르던 이 지대의 청천강물을 통채로 돌려놓은 웅건하면서도 드넓게 형성된 가물막이뚝이 려단전투원들의 불굴의 기상인듯 첫눈에 장쾌함을 금치 못하게 한다.

—부르릉, 윙—위잉, 뚜루룩, 뚜루룩…

공사장의 곳곳에서 대형화물자동차와 굴착기, 착암기들이 기세좋게 용을 쓰고 버럭운반전투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힘찬 웨침이 울려퍼진다.

《우리 려단전투원들은 미래를 앞당겨오는 선구자, 개척자라는 자각과 긍지를 안고 기어이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기 위하여 저렇듯 힘든줄 모르고 내달리고있습니다.》

방금 양수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 부분품들을 싣고 현장에 도착한 려단정치부장 안영구동무가 힘주어 하는 말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잠간 사이에 벌써 공사장중심구간의 또 다른 버럭층을 타고앉은 굴착기운전공 신정국, 림경남동무들이 굴착기바가지를 휘두르며 물먹은 버럭들을 자동차마다에 련속 실어주고있다.

만적재된 짐을 싣고 쏜살같이 달리는 자동차운전사 윤철식동무, 언제 버럭을 부리고 돌아왔는지 다시 자동차적재함을 깊숙이 들이미는 홍영진동무, 이들의 하루 버럭처리량은 기초굴착이 시작된 초기에 비하여 무려 2배로 뛰여올랐다고 하니 정말 높은 실적이 아닐수 없다.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를 더욱 놀래우는 혁신이 연방 일어난다.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쥔 착암공들과 붉은기를 휘날리며 맞들이와 질통전에 떨쳐나선 각 대대돌격대원들의 열띤 투쟁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 벅차게 해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일념안고 앞서거니뒤서거니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려단돌격대원들의 억센 기상인양 언제앞면의 기초콩크리트구조물이 10m나 더 뻗어나간다.

구간별로 뚝을 막고 양수작업에 열을 올리는 청단군대대 돌격대원들, 이에 보조를 맞추어 정리굴착과 휘틀조립, 콩크리트치기전투를 립체적으로 벌려가는 태탄군과 신천군, 재령군대대 전투원들의 얼굴에 땀방울이 비오듯 흐른다.

어찌 이들뿐이랴. 언제공사장에서 눈길을 돌리니 여러 대대전투원들이 새로 착수한 60여m구간의 물고기길기초콩크리트치기를 마감짓는 미더운 모습이 보이고 취수구수문기둥의 또 새로운 높이의 콩크리트치기를 서두르는 이채로운 광경도 펼쳐진다. 공사장 그 어데서나 총돌격전에 나선 려단전투원들의 투지가 락동강도하전투에 나선 인민군용사들의 불굴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청천강정복전에서 기어이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려단장 김석철동무의 확신에 넘친 목소리이다.

청천강의 정복자들!

그렇다. 전화의 그날 락동강도하의 길에 올라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며 승리떨쳤던 영웅전사들처럼 오늘의 로동당시대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사생결단의 의지로 받들어가는 이런 애국충정의 대오가 있기에 청천강반의 면모는 시간을 다투며 달라지고 올해과제수행의 돌파구는 더욱 활짝 열리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정순성

‖ 현지보도 ‖

휘몰아치는 공격전의 불바람

※ 황해남도려단 언제건설전투장에서 ※

희천12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태천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전투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 일념안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취수구수문기둥과 도류벽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순간도 전진을 멈출수 없다

태천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부대입니다.》

지난 11월 중순의 어느날,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콩크리트치기작업을 진행할수 없는 정황이 조성되였다.

이 문제를 두고 김호관, 김천복, 리태식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일군들의 생각은 깊어갔다.

—새벽이면 기온이 더 급격히 떨어질 마가을날씨조건에서 혼합물이 얼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 그렇다고 완성높이를 향하여 치닫던 구조물들의 콩크리트치기를 중단할수는 없다.

일군들은 조광홍, 한태영동무를 비롯하여 경험이 많은 건설자들과의 진지한 협의끝에 충분한 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도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나무휘틀의 안쪽면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새벽의 날씨변화에도 끄떡없을 가열대책을 세우고 타입면의 웃면에는 나래를 비롯한 보온자재를 덮으면서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기 위한 현실성있는 방안들이 세워졌다.

즉시 그 실현을 위한 사업들이 벌어지는 속에 새로운 휘틀이 짧은 시간동안에 제작되고 많은 량의 나래와 마른골재가 마련되였으며 단번에 200L이상의 물을 덥힐수 있는 큰 물탕크와 합리적인 가열방식이 완성되였다. 이에 발맞추어 혼합직장, 타입직장을 비롯한 각 직장 전투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완성높이를 가까이한 취수구도류벽에 대한 콩크리트치기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였으며 물고기길공사장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며 기초굴착이 본때있게 벌어졌다.

그 어떤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순간도 전진을 멈추지 않고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기려는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비상한 자각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하여 사업소에서는 찬 날씨가 지속되는 며칠동안에만도 취수구도류벽의 2개 블로크에 대한 공사를 완성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대중운동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화평군목제품가공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화평군목제품가공공장이 최근년간 대중운동에 큰 힘을 넣어 군의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실리가 있는 공장, 보배공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하다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언제나 중요한 당적사업으로 틀어쥐고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대중운동을 통하여 자기 단위를 발전시키겠다는 결심과 목표는 다 있다.

그러나 결과는 같지 않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로 분석할수 있겠지만 우선 당, 행정배합에 있다고 볼수 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은 대중운동에서 당, 행정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초급당위원회가 잘한 점은 당, 행정배합에서 행정책임일군의 역할을 매우 중시한것이다.

6년전 공장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세울 때에 있은 일이다.

그때 지배인 장남석동무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장의 생산지표를 대담하게 바꾸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목제품생산공정을 새롭게 꾸려놓고 단계별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쳐 가까운 몇해어간에 3대혁명붉은기도 쟁취하자고 하였다.

그의 제의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당시로 말하면 공장은 군안의 주민들속에서 농토산물을 수매받아 가공하던 자그마한 지방공업공장이였다.

그런 공장에서 생산지표를 바꾼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생산설비들을 완전히 바꾸어야 했으며 건물배치를 달리하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하는 등 제기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였다.

그때 지배인의 결심을 남먼저 지지해나선 사람이 바로 초급당비서 리관호동무였다.

지방의 원료원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공장을 군의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공장으로 전환시키자는 지배인의 결심은 당정책적요구에 민감하고 행정경제사업실무에 밝은 일군만이 내릴수 있었다.

지배인의 애국의 뜨거운 마음과 과학적타산에 기초한 경영전략은 참으로 소중한것이였다.

어느날 당원협의회에서 초급당일군은 이렇게 호소하였다.

—물론 조건은 어렵다. 그러나 조건에 포로되지 말고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여 보배공장으로 전환시키자는 지배인동무의 결심을 당조직은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모두 지배인동무와 한마음한뜻이 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본때있게 다그치자.

초급당일군의 호소는 당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제품생산에서 전환을 이룩하려는 지배인의 결심과 초급당일군의 호소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분발시키였다.

군당위원회에서도 이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되여 공장에서는 생산지표를 바꾸기 위한 전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일판이 커질수록 초급당일군은 지배인이 주견있게 사업을 진행해나가도록 뒤에서 적극 떠밀어주었다.

지배인 장남석동무는 생산지표가 바꾸어지는데 맞게 경제과업수행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책략적으로 전개해나갔다.

당조직의 믿음과 기대는 공장의 행정경제사업을 책임진 지배인에게 있어서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치게 한 커다란 힘으로 되였다.

초급당일군은 행정일군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제기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것을 언제나 중시하였다.

초급당비서와 지배인은 늘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갔다. 건설장에서, 때로는 생산현장에서, 식사를 같이하면서도 그들은 공장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제품생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보이라의 개조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였다.

열관리작업반의 당세포를 통하여 열효률을 높이기 위한 새 기술혁신안이 초급당위원회에 제기되였다.

이때 초급당일군은 서둘러 결론하지 않았다.

그는 작업반기능공들속에서 제기된 문제를 지배인에게 알려주면서 그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런데 지배인은 보이라개조에 대하여 이미 생각을 해보았다고 하면서 아직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석탄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리용하여 보이라의 열효률을 높일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있었다.

그때 만일 초급당일군이 지배인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당세포에서 제기된대로 기술혁신문제를 지지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초래되였겠는가.

초급당일군은 지배인과 함께 보이라에 붙박혀 기능공들과 수십차례 토의도 진행하고 전문과학연구기관들의 방조도 받아가며 부산물을 리용하여 보이라의 열효률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야말았다.

초급당비서의 이런 사업기풍과 작풍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초급당일군은 행정경제사업에서 지배인의 발언권을 높여주고 행정지휘체계와 행정규률이 철저히 서도록 당적지도를 짜고들었으며 지배인이 직책상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적극 도와나서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그 과정에 초급당일군과 지배인은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가장 가까운 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였다.

원료문제를 풀기 위해 벌목장에 올라갔던 지배인이 뜻하지 않은 일로 허리를 상하였을 때 그의 치료를 위해 밤을 지새운 사람도, 지배인의 어깨우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먼 출장길도 웃으며 떠난 사람도 바로 초급당일군이다.

어려운 일감이 제기될 때면 저마다 나서겠다고 서로 싱갱이질을 하는 당, 행정일군의 모습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뜨겁게 새겨져있다.

다음으로 이곳 초급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다른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나가는것을 언제나 중시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벌리는 대중운동을 철저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당적지도를 짜고들었다.

청년동맹조직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모범초급단체칭호쟁취운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근로단체조직들이 3중, 2중모범초급단체의 영예를 지니게 하였다.

또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건조기열풍안내장치, 원삭기주축개조를 비롯한 22건의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어 년간 천여㎥의 통나무를 절약하면서도 천수백t의 질좋은 제품생산능력을 조성하였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게 하였다.

공장에서는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발동하여 생산과정에 나오는 폐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목욕탕과 온실, 종합축사를 새롭게 건설하고 실리있게 운영하고있으며 종업원들의 후방사업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있다.

많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기사, 준기사의 자격을 받았으며 공장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혁명적랑만으로 가득찬 훌륭한 예술종목들을 여러 무대들에 펼쳐놓아 만사람을 감동시키였다.

대중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 모든 당세포들은 충성의 당세포로 자라났으며 공장은 3대혁명붉은기공장,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공장, 모범체육공장의 영예를 지니였다.

해마다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군의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보배공장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이 공장의 경험은 당조직들이 당, 행정배합을 중시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다른 대중운동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갈 때 단위사업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숙천군 검흥농장 제10작업반에서

축산이 거름생산이다

숙천군 검흥농장 제10작업반 축산기지에 가면 높이 솟은 거름더미들이 눈길을 끈다. 어떻게 되여 벌써 질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였는가고 물으면 농장원들은 축산이자 곧 거름생산성과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이 작업반의 축산기지를 돌아보면 십분 리해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들에서 다음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작업반의 축산기지를 보면 류다른데가 있다. 돼지우리를 땅을 일정한 깊이로 파고 건설하였기때문이다.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돼지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건설하면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

집짐승을 기르는데서 겨울철온도보장을 잘하는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작업반에서는 땅을 파고 돼지우리를 건설하였다. 돼지우리를 이렇게 건설하니 온도보장조건이 좋아져 겨울철에도 돼지들의 증체률이 높아졌다. 또한 짧은 기간에 많은 거름을 생산할수 있는것은 물론 질도 좋았다.

작업반에서 여러가지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기 시작한것은 몇해전부터였다. 그때 제일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나선것은 돼지우리들의 겨울철온도보장이였다. 품은 많이 들였지만 추위로 하여 축산물생산이 오르지 못하기때문이였다.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돼지우리를 땅을 파고 건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그들은 즉시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면서 설계를 앞세운데 기초하여 땅을 깊이 파고 돼지우리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우리마다 북데기를 두툼히 깔고 돼지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니 추운 계절에 온도보장이 잘되여 돼지들이 빨리 자라는것은 물론 많은 거름이 생산되여 좋았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축산물생산이 오르는데 맞게 관리공들이 보다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사양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도록 이끌어주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축산물생산이 올랐다. 또한 거름생산도 늘어났다.

작업반에서는 오리, 닭을 비롯한 여러가지 집짐승기르기에도 힘을 넣어 많은 거름을 생산하였다.

작업반에서는 공동축산만 잘하는것이 아니다.

농장원세대들에서도 돼지, 닭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집짐승을 기르고있다. 따라서 농장원세대들에서도 해마다 많은 거름이 생산되였다.

지금 이 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지난 기간의 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거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강철

실화

민족의 장군과 군인의 운명

김일성훈장수훈자이며 공화국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인 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표무원의 수기를 펼치고

1949년 남조선괴뢰군 2개 대대가 한꺼번에 의거입북하여 조선인민군에 편입한 충격적인 사건은 60여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조선사람모두에게 참으로 심각한 교훈과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이 력사적사건의 주인공의 한사람인 표무원은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바라고 참다운 인생을 살고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극적인 인생체험으로 얻은 귀중한 철리를 남겼다.

—태양을 등지면 암흑이요, 태양을 따르면 광명이다!

군공메달

《살길을 찾아 만주로, 배움의 열망을 안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징병을 피하여 방랑살이로 부평초처럼 떠다니던 나는 해방이 되여서야 고향 대구로 돌아왔다. 한생 고역과 가난에 시달리다가 한많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봉분앞에서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망국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고향, 내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되리라.》

이것은 표무원이 군복을 입게 된 동기에 대하여 쓴 수기의 한 대목이다.

피끓는 청춘의 꿈, 애국의 열정을 안고 그는 남조선에 생겨난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였다. 가슴속에 차고넘치는것은 오직 민족을 지키는 군대의 기둥이 되리라는 포부였다. 피뢰륙군사관학교를 2기생으로 졸업한 그는 몇해사이에 대대장이 되였다.

한등급, 한등급 장교의 직급이 계속 올라갈수록 이상하게도 그의 번민은 더욱 커만갔다. 매일같이 《북진》을 설교하는 리승만을 비롯한 정부와 군대의 우두머리들이 일삼는 매국배족적인 행위도 너절하기 짝이 없었지만 군인인 그의 자존심을 참을수 없이 피롭히는것은 남조선의 정치적권력도 군권도 온통 미국이 틀어쥐고있는것이였다. 38° 선의 수십km 구간을 담당한 대대장인 그도 결국 미군 《고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어느날 표무원은 대대의 미군 《고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댔다.

《왜 당신들 미군은 우리 나라에서 안 나가겠다고 하는가?》

실눈을 짓고 표무원을 노려보던 미군 《고문》은 안락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세계지도앞으로 다가갔다.

《쏘련은 조선국경에서 자기 령토인 연해주로 한발자국 물러서면 되지만 우리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 수천mile을 물러나야 한다.

일본은 조선을 아시아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삼았지만 우리 미국은 정보전략에서 전파탐지기의 넓은 포괄범위를 제공해주는 지점, 보다 중요하게는 핵무기를 북쪽과 서쪽에 발사하는데 리상적인 위치를 제공해주는 지점으로서 조선을 중시하고 있다. …》

《그럼 우리 조선이 당신들의 군사기지란 말인가?》

미군 《고문》은 이죽거리며 거침없이 내뱉았다.

《군사기지이상의것이요. 수천mile밖에 있는 조선은 아메리카의 국경이나 같소. 우리가 그토록 막대한 원조를 아끼지 않으며 당신들 〈국방경비대〉를 키우는것도 다 아메리카의 이런 극동전략으로부터 취해진 조치의 하나요.》

애써 부정하려 해보았지만 미제의 총알받이, 침략의 값싼 대포밥으로만 필요한것이 바로 괴뢰군이였다. 미군 《고문》이 제시하는 교범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여온 그의 모든 군복무과정과 총탄 한발, 휘발유 한방울에 이르기까지 미군 《고문》의 결재에 의해서만 허락되는 《국군》의 형편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감투를 쓴 리승만은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며 군사 《원조》를 애걸하고있었다.

군인은 삶과 죽음, 정의와 부정의, 사랑과 증오의 첨예한 극단에 서있다. 이러한 군인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는 누구의 지휘를 받는가 하는것이다. 군인의 운명은 상관의 명령지시에 따라 단 한걸음에 의해서도 영예와 불명예, 영웅적희생과 치욕스러운 개죽음이라는 량단에서 결판이 나는 법이다.

표무원은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나는 누구의 명령지시에 복종하고있는가? 내우에 과연 누가 있는가?

조선이 조선사람의것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미국이 있었다. 동족학살을 군인의 본업으로 만들려 날뛰는 미군이 그들을 지휘하고있었다.

(도대체 나는 어느 나라 군대인가?!) 하는 스스로의 물음앞에 그는 대답할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미군과 리승만괴뢰정부를 향하여 총대를 돌려댔던 려수군인폭동 참가자들에 대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폭동에 참가했던 친우들과 후배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소식은 그의 피를 분노로 끓게 하였다.

《해방자》—미국에 대한 환상이 뿌리채 뒤흔들리던 그에게 드디여 비장한 각오를 가지게 하는 충격적인 계기가 닥쳐왔다.

1949년 봄 미국회 상원에서 《국군》의 북진준비정형을 검토하기 위한 《사찰단》을 춘천대대에 보내여온다는 상부의 지시가 있은 때로부터 며칠후에 미군사고문단 단장이 괴뢰군우두머리들을 거느리고 그의 대대가 담당한 38° 선지역에 나타났다.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는 표무원에게 생뚱같이 하싼호사건의 경위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대륙전쟁과 같은 큰 전쟁도 이렇게 작은 충돌에서 시작되는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결심과 행동에 의해서도 이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입니다. 내 말의 뜻을 알겠습니까?》

전쟁, 동족상쟁, 피바다!…

표무원은 로버트의 상통에 탄창이 빌 때까지 총탄을 퍼붓고싶었다.

나라를 지키는 민족의 남아가 될 큰뜻을 품고 자원하여 군복을 입고 총을 들었지만 그의 군인생활은 치욕과 반역의 구렁텅이에로 점점 깊숙이 들어서고있었다.

괴뢰군살이는 복종해도 반항해도 죽음이라는 피절은 교훈이 점점 명백해지는 표무원의 심장속에서 날이 갈수록 불덩어리처럼 더욱 뜨거워지는것이 있었다. 일제의 백만대적이 벌벌 떨던 민족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과 그이께서 창건하신 조선인민군에 대한 이야기였다. 미국놈들도 무서워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슬하에서 하루만이라도 병사로 싸우고싶었다.

가자, 북으로! 하고 단호한 결심을 내린 그의 눈앞에 문득 자기를 친형처럼 따르는 수백명 사병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병들을 다 데리고 김일성장군님 품으로 가자. 조선사람들은 결코 동족상쟁을 원치 않는다는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온 세상에 과시하자.)

1949년 5월 4일 밤 부대를 집결시킨 표무원은 다음날 아침까지 38° 선 이북지역으로 은밀히 《침공》하는 《특수훈련》을 한다는것을 선포하고 완전무장한 600여명의 대대병사들과 함께 5월 5일 군사분계선을 넘어섰다. 그들과 더불어 강태무대대장이 홍천제2대대 병사들과 함께 의거입북해왔다.

솔대문까지 해세우고 개선영웅처럼 떠받들어주던 북녘인민들의 진심어린 환호는 평양에 이르러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환영조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괴뢰군 2개 대대를 데리고 의거입북하여온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자고 하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들에게 이번에 괴뢰군 2개 대대를 데리고 공화국북반부로 의거입북하여온것은 조선청년으로서의 애국적인 소행으로,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북조선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주는 행동으로 높이 평가한다는것과 지난날 괴뢰군대대장을 하였지만 함께 손잡고 일할수 있는 검열된 혁명동지로 믿는다는것을 전달하여야 하겠습니다.》

괴뢰군으로 군인의 첫걸음을 떼였던 표무원은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다시 태여나 참다운 군인생활의 새 발자욱을 보무당당히 내짚었다. 1949년 10월 그는 조선로동당원이 되였다. 공화국은 그를 우리 나라의 첫 군공메달수훈자의 한사람으로 내세워주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아직은 정의의 총한방 쏴보지 못한 어제날의 괴뢰군장교에게 어이하여 공화국의 첫 군공메달이 수여되였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개 대대를 끌고 의거입북해옴으로써 전쟁준비에 미쳐날뛰던 미제와 괴뢰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한 대대장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이 부모처자를 적들속에 남겨두고 북으로 들어온것은 대담하고 애국적인 소행이라고 치하하시였다. 후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표무원의 애국적장거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는 평화시기에 한개 대대 600여명을 데리고 온 영웅이라고, 정말 영웅이라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참된 군인의 사명은 죽이는것이 아니라 지키는것이다. 자신뿐아니라 600여명 열혈청년들의 운명을 재생의 길로 돌려세운 표무원의 대담무쌍하고 과감한 행동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적 한개 대대를 소멸한것보다 더 큰 군공으로 내세웠던것이다.

군인의 고향

표무원의 수기에는 그가 각별한 감정을 안고 추억한 이런 대목이 있다.

《전쟁이 일어나 3일만에 있은 일이였다.

한 일군으로부터 의거입북한 두 대대의 전투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작전도에서 대대들의 위치를 알아보시였다. 전투정황이 아무리 긴급하다 하더라도 의거입북한 군인들을 괴뢰군시절의 주둔지였던 춘천과 홍천에 며칠간 있게 하여 가족, 친척, 친우들을 만나보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남진의 길에 류례없는 화폭이 펼쳐졌다. …》

이북 《빨갱이》들이 의거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리승만괴뢰도당의 거짓선전을 듣고 제사까지 지냈던 사람들은 해방된 고향땅에서 인민군대군복을 입은 남편과 아들, 아버지를 만난 기쁨에 눈물범벅이 되였다. 남진해온 표무원대대 병사들을 위해 마련된 환영회장은 춘천시민들의 환호성으로 끓어번졌다.

병사들은 끓어넘치는 격정을 안고 저저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받아안은 꿈같은 환대와 새 생활에 대하여, 한가정과도 같고 대학과도 같은 인민군대에서의 긍지높은 군사복무의 나날에 대하여 환희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지난해 의거입북하기 전만 하여도 우리들은 리승만의 졸도였으며 인민의 살륙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여러분의 자유와 복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진정한 인민군대라는것을 소리높이 웨치게 되였습니다.》

의거입북당시 표무원대대에는 문맹자가 적지 않았다. 어제날의 그 《문맹자》 사병들이 원쑤들에게 속히워 살아온 남녘의 《까막눈》들을 향해 뜨겁게 부르짖었다.

《〈국방군〉에서는 매만 얻어맞고 신문 한장 못 보고 방송 한번 들어보지 못했는데 김일성장군이 령도하시는 인민군에 편입된 이후에는 글을 쓸줄 알고 읽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조국이 통일된 후에 우리들은 고향에 가서 우리들의 손으로 글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치겠습니다.》…

표무원은 그때를 추억하면서 며칠동안 고향의 혈육들과 상봉을 하고난 병사들중에 그대로 집에 눌러앉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가 하는 지휘관의 위구심을 누를길 없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수기에 썼다.

그러나 대대전원이 휴가기일을 앞당겨 대오에 들어섰다. 그뿐아니라 병사들을 따라온 가족, 친척, 친우들이 저저마다 의용군으로 탄원하는 바람에 대대가 삽시에 몇개 대대력량으로 불어났다.

남진의 길 어디서나 표무원대대는 남녘인민들의 특별한 환영을 받았다.

각별한 정으로 따뜻이 맞아주고 너도나도 대오를 따라서는 수많은 사람들, 원쑤의 군복을 벗어던지고 용약 의거해오는 괴뢰군장교들과 사병들의 그 열렬한 공경의 눈빛들을 대할 때의 가슴찌릿하던 감정을 표무원은 수기에 이렇게 썼다.

《공화국에서 한해동안에 전혀 딴 사람이 된 우리 부대병사들의 모습에서 남녘의 인민들과 괴뢰군사병들은 재생의 길을 찾고있었다. 그들모두도 우리처럼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싶었다.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는 길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 용맹하여야 하였다.》

대대에서 련대로 승격된 표무원련대는 해방지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수많은 괴뢰군패잔병들과 미제의 악선전에 기만당하여 갈길을 찾아 헤매이던 인민들에 대한 정치선동사업을 스스로 말아 진행함으로써 그들을 참다운 삶의 길에 세워주었다.

락동강을 도하한 그의 련대가 보현산에서 가렬처절한 전투를 벌릴 때였다. 적들의 끈질긴 공격에 식량도 탄약도 수류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전우들도 하나둘 쓰러졌다.

그러나 고지의 용사들에게 어려움은 있어도 비관은 없었다. 그들의 뒤에는 수류탄과 탄약을 지고, 더운밥을 품에 안고 근 100리를 달려오는 남녘인민들의 지극한 사랑이 있었다.

《만약 우리가 괴뢰군으로 그냥 남아있었더라면, 저 반대편 전호속에서 원쑤의 총을 잡고 엎디여있었더라면 저 백성들이 이렇게 생사를 같이하자고 우리에게 달려올수 있을것인가.

나는 총창을 비껴들고 전호를 박차올라 웨쳤다.

〈동무들, 우리뒤엔 인민이 있다, 조국이 있다! 나를 따라 돌격 앞으로!〉》

사랑하는 고향의 부모형제들을 위하여 불사신처럼 싸운 용사들의 피어린 자욱자욱이 수기의 갈피마다에서 뜨겁게 밟혀왔다.

적들과는 대비할수 없는 적은 력량이였지만 인천상륙작전과 배합하여 영덕군장사계선에서 보조상륙을 기도한 적들을 피멸시킨 그들의 군공으로 하여 락동강계선까지 진출하였던 인민군주력부대들은 적들의 포위를 뚫고나올수 있었다. 근 10일간에 걸친 도덕산과 561고지계선방어전투에서 적 2개 련대를 완전히 소멸하고 인민군주력부대들의 후퇴를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의 길에서 표무원련대 병사들은 또다시 정든 고향을 지나가게 되였다.

그러나 대오의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한번 더 안아보고싶은 귀중한 모든것이 점점 멀어져가건만 병사들은 곧바로, 앞으로만 걸어갔다. 삶과 죽음, 신념과 의지를 판가리한 전쟁의 첫해 몇달동안에 군인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한 그들이였던것이다.

공화국이 끝장났다는 적들의 궤변을 무자비한 섬멸전의 불벼락으로 짓부셔버리며 그들은 기어이 최고사령부를 찾아왔다.

군인의 운명과 명예

표무원은 전화의 나날에 항상 자신의 거울로, 혁명군대 지휘관의 본보기로 삼고있던 한 항일혁명투사에 대하여 이렇게 뜨겁게 회고하였다.

《준엄한 전장들을 더듬어볼 때마다 나에게는 최춘국사단장의 장렬한 최후가 삼삼히 떠오르군 한다. 제천해방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우리 련대가 안동해방전투에 돌입하였을 때였다.》

선두부대와 같이 전진하던 최춘국사단장이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는 뜻밖의 급보를 받고 표무원이 달려갔을 때 투사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있었다.

《군의동무, 내 생명을 5분만 더 연장해주오. 참모장에게 할 말이 있소.》

참모장에게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한 작전안을 전달한 최춘국사단장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참모장동무!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대로 꼭 안동에서 적들을 소멸해야 하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만수무강을 바란다고 전해주시오.》

항일혁명투사는 이렇게 전사했다. 불사신같은 그의 모습은 표무원에게 성스러운 인민군군관복을 입던 그날부터 성장의 걸음걸음 빨찌산의 신념과 넋을 심어주던 항일혁명투사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더욱 사무치게 새겨안게 해주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물로 안겨주신 모젤권총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그것은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들의 피어린 넋이 슴배인 혁명의 총대였다. 최후의 5분마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에 바친 투사의 고귀한 희생은 군인의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빛나는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었다.

(내 한생 그들처럼 살리라.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내 총알이 되여 죽음도 서슴지 않으리라!)

표무원은 더는 그 자리에 서있을수 없었다.

그는 련대를 이끌어 앞장에서 탄우를 맞받아나갔다. 안동 북쪽 개고개계선에서 완강한 방어를 기도하던 괴뢰군 16련대를 완전히 짓뭉개버리기 위한 돌격전의 선두에 나섰다.

승리의 함성드높은 안동시가에 나붓기는 람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는 표무원의 눈길은 젖어들었다.

(사단장동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했습니다!)

가렬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표무원과 그의 병사들은 나날이 성장해갔다.

누구를 위하여 싸워야 하고 무엇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하는지도 몰랐던 어제날의 괴뢰군사병들이 아니였다. 그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서라면 마지막숨결, 피 한방울까지도 깡그리 바쳐 싸우는 영용한 인민군용사들이였다. 《군인은 전쟁의 소모품이다.》라는 노예교육을 받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평범한 병사 한사람한사람도 생사를 같이할 혁명동지로 믿어주고 아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이야말로 죽음도 영광인 영생의 품이였다.

《명령을 내리기 전에 믿음을 먼저 안겨주시고 자그마한 군공도 값높은 위훈으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령장의 품속에서 나는 또다시 더 높은 직무를 맡게 되였다.

1952년 5월 우리 부대의 전투활동정형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어려운 시기에도 동요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왔으며 적후투쟁과 적군와해사업도 잘하였다고,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잘 싸운 그들은 전투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혁명동지들이며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값높이 평가하시였다.

그후 나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부부장으로 임명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신임을 받아안으며 인민군대의 전도양양한 군사정치일군으로 자라던 잊을수 없는 추억들을 표무원은 이렇게 수기에 담았다.

승리의 날이 왔다. 평양의 하늘가에 터져오른 전승의 축포속에는 적과의 싸움에서 용맹과 위훈을 떨쳤을뿐아니라 적군와해, 포로송환사업과 같은 총포성없는 싸움마당에서도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표무원의 군공도 비껴있었다.

1953년 9월 표무원은 28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인민군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받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서한까지 보내주시였다.

《1953년 8월 28일 내각 결정으로 동지는 조선인민군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나는 동지가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받은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미영무력침공자들과 그의 주구 리승만도당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얻은 승리를 계속 공고히 함에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동지의 열렬한 투쟁과 로력으로 조선인민군 무력강화발전에 있어서 큰 기여가 있을것이며 로동당과 정부에서 준 고상한 임무를 충실하게 실행할것을 확신하는바입니다.》

1955년 5월 31일부 《로동신문》에는 《의거입북한 전 〈국군〉 장병대회 개막》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리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주구 리승만역도들의 침략적전쟁정책을 반대하여 공화국품안으로 용감히 의거입북한 전 〈국군〉 장병들의 대회가 30일 오전 9시 모란봉극장에서 개막되였다.

대회에는 의거입북하여 현재 인민군 각 부대와 민주학원과 기타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전 〈국군〉 장병대표 650명이 참가하였다. …》

괴뢰 《국군》 창시자의 한사람이라고 《자부》하다가 쓰라린 인생의 길을 걸은 최덕신선생이 전쟁이 끝난지도 수십년후 공화국의 품을 찾아와 그의 손을 잡고 한말이 의미심장하다.

《표무원씨는 벌써 30여년전에 한개 대대를 이끌고 위대한 주석님을 찾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인생말년에야 빈손으로 왔으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전쟁시기 괴뢰군군단장, 사단장이였던 사람들도 이렇게 백발을 얹고서도 진정한 삶의 고향을 찾아왔다.

홍안의 시절 괴뢰군대대장으로 분계선을 넘어온 표무원로병을 우리 당은 한생토록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내세워주었다. 어머니당에서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그에게 조선인민군 중장의 군사칭호를 안겨주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로 80이 넘을 때까지 로당익장하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었다.

주체95(2006)년 4월 표무원 로병이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인민군군관으로 복무하면서 미제의 무력침공을 쳐물리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오늘까지 오직 당을 믿고 인민군대와 사회의 여러 부문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충실히 일하여왔습니다.

…조의식장에 나의 명의로 된 화환도 보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훈장수훈자이며 조국통일상수상자인 그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7(2008)년 12월 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였다. 그후에도 로병의 유자녀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당에서 말아 잘 돌봐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 *

군복을 입을 때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서한 군인의 운명은 삶과 죽음으로 론하지 않는다. 군인의 명예와 운명은 어떻게 지켜지고 무엇으로 빛나는가.

지난 10월 전투임무수행중에 장렬하게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용사들을 붉은 기폭에 감싸안아 정든 군항, 사랑하는 조국과 함께 영생하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고귀한 은정속에 빛나는 병사릉의 묘비에는 이런 글발이 새겨져있다.

《묘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조선인민군이 그렇듯 강하고 우리 군인들이 그렇듯 용맹한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영원한 최고사령관복이 있기때문이다.

괴뢰군대대장으로부터 조선인민군 중장, 공화국영웅, 통일애국렬사로 빛나는 삶의 절정에 올라선 표무원의 인생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조향선

공화국창건 65돐기념

4.15기술혁신돌격대들간의 전국기술혁신경기총화

공화국창건 65돐기념 4.15기술혁신돌격대들간의 전국기술혁신경기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있은 이번 경기에는 전국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4.15기술혁신돌격대들이 참가하였다.

경기기간 모든 단위들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혁신목표를 대담하게 세우고 그 실천활동을 대중적으로 활발히 벌리였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부령합금철공장,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신립탄광 등의 4.15기술혁신돌격대들에서는 중요공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생산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는데 기여할 가치있는 연구성과와 기술혁신을 이룩하였다.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신의주마이싱공장, 운전군 보석협동농장, 황주군농기계작업소, 신천군량정사업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의 돌격대원들은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고 중요생산공정과 설비들을 현대화, 자동화하였다.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경기기간 수천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도입하여 주체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국가에 큰 리익을 주었다.

4.15기술혁신돌격대들간의 전국기술혁신경기총화가 27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있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과 현장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기순위가 발표되고 우수한 단위들에 우승기와 표창장 등이 수여되였다.

—평양제약공장에서—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진행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찍음

우리 나라와 인디아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한 영화감상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디아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한 영화감상회가 27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에는 조선인디아친선협회 부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친선협회성원들,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들과 아제이 꾸마르 샤르마 주조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연설들이 있은 다음 참가자들은 인디아예술영화 《모든 아이들에게는 개성이 있다》를 감상하였다.

팔레스티나대사관 성원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팔레스티나국가선포 25돐과 팔레스티나인민과의 세계련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이 27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전승열병식광장에서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였다.

전승기념탑 《승리》상앞에서 그들은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 관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특명전권대사는 참관을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전승업적과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현장을 들끓게 하는 의료봉사활동

안악군 신촌리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이 들끓는 농장벌에 달려나가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병원에서는 날씨가 추워지는데 맞게 농장원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있다.

얼마전 다음해농사차비로 들끓고있는 농장벌에 달려나간 의료일군들은 예방 및 치료사업을 짜고들면서 위생상식들을 알기쉽게 해설해주었다. 그리고 아침모임시간을 리용하여 농장원들에게 우리 당에서 인민들에게 베풀어주는 인민적보건시책들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누구나 건강한 몸으로 참다운 생활을 누려가고있다는 의료일군들의 이야기는 농장원들의 가슴을 더욱 끓게 하였다.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받들어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갈 열의드높이 농장원들은 당면한 농사일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렴창성

우리 당이 제일, 사회주의가 제일이다

문수물놀이장에서 인민의 꿈 모두 꽃피리

심장으로 펴치는 로동당만세소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문수물놀이장이 문을 연 첫날부터 매일같이 초만원이다. 수도시민들도, 출장이나 나들이온 지방사람들도 앞을 다투어 문수물놀이장을 찾고있다.

세계일류급의 물놀이장에서 우리 인민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있는가.

문수물놀이장에 들어선 사람들은 어디로 먼저 갈가 하고 망설인다. 오색찬란한 빛을 뿜는 형형색색의 물놀이설비들과 수조들로 갈것인가 아니면 실내체육관과 운동기재실, 한증방이나 자외선치료실에 먼저 갈것인가?

모든것이 희한하고 황홀하여 어느곳을 먼저 택해야 할지 누구든 처음에는 갈피를 못 잡는다.

그러나 물놀이장에선 뭐니뭐니해도 물놀이가 첫째인지라 맑은 물 출렁이는 수조에 풍덩 뛰여들어 신나는 물놀이세계를 체험하고나면 마음은 또다시 다기능화된 문수물놀이장의 곳곳을 날아옌다.

운동기재실도 문수물놀이장에 온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의 하나이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섰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었다.

발뻗침운동기재를 마주하고 육중한 추를 끌어당겼다놓았다 하는 청년, 꼬마힘장사인듯 량손에 쌍층아령기재를 들고 운동에 열중하는 소년, 녀성종합운동기재에서 등운동, 허리운동을 하는 녀성들…

그들의 기쁨을 웃음꽃이 활짝 핀 얼굴마다에서 읽을수 있었다.

발판식진동기에 올라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 박순희동무는 꼭 비행기를 탄 기분이라고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설비들이 다 최상급입니다. 몸이 금시 날아갈것처럼 거뜬해집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민들이 리용할 이 운동기재실의 설비들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으로 마련하도록 하시였다니 그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최고급의 운동기재들을 차례차례 리용하고난 한 손님은 여기서 땀을 흠뻑 뽑고나니 덕수생각이 나서 물놀이장으로 다시 가려던참이라고 하면서 한자리에서 물놀이도 다양하게, 운동도 여러가지로 할수 있는 이런 최상급의 다기능화된 물놀이장이 다름아닌 인민의것, 우리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하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운동기재실문은 쉬임없이 여닫기였다. 끝없이 드나드는 사람들을 뒤에 남기고 우리는 휴식터라고 쓴 곳에도 들려보았다.

동굴형식의 운치있는 건축꾸밈새와 정서적인 은은한 조명, 바닥에 깐 푸르른 인공잔디와 한쪽기슭으로 돌돌 흐르는 물소리로 하여 아늑하고 푸근한 맛이 나는 휴식터는 오색령롱한 불빛과 흥겨운 음악으로 기분이 붕 뜨는 화려한 물놀이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자연동굴의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휴식터에서 사람들은 푹신한 걸상들에 앉아 즐겁게 담소하고있었다.

무릉도원같은 휴식터의 풍경에 취해있는데 청춘남녀 몇몇이 우르르 일어서더니 이모저모가 다 새로운 한증방들에 가보자고 하는것이였다.

그들을 따라가보니 특색있는 한증방들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한증휴계홀에서 사람들이 혈색좋은 얼굴로 한증을 하고난 쾌감을 나누고있었다.

대동강구역 의암동에 사는 방영촌녀성은 난생처음 마노한증이라는것을 해보았는데 기분이 상쾌하고 살결이 고와진것 같다고 하였고 시급기관에서 일한다는 한 사무원은 신선한 느낌을 주는 산림욕방한증이 머리를 맑게 한다고 좋아하였다.

참숯한증이 제일, 황토한증이 제일이라는 등 제나름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난다 좋수다!》라고 하는 한 로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만경대구역에서 산다는 조석제로인이였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우리 딸이 문수물놀이장에 꼭 가보라기에 동부인하여 왔는데 하나하나가 다 어찌나 훌륭하고 좋은지 떠나고싶질 않소. 세상에 이런 물놀이장이 또 있겠소. 정말 백점만점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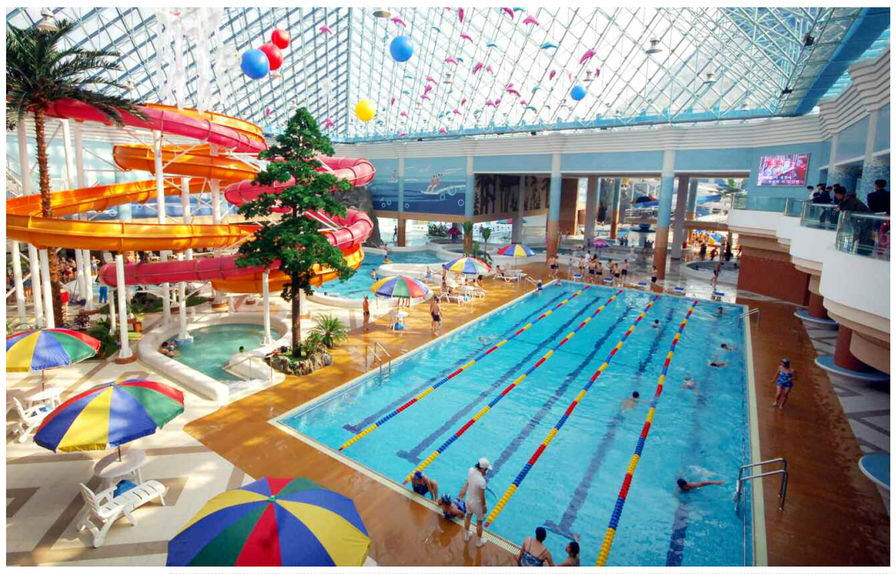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로인을 둘러쌌다. 그들은 신비함과 황홀함의 극치인 문수물놀이장을 돌아보며 너무 희한하여 표현을 찾을길이 없었는데 아바이가 참 신통한 말을 했다고, 정말 백점만점짜리 물놀이장이라고 너도나도 호응하였다.

백점만점짜리 물놀이장!

이것은 문수물놀이장을 찾은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인민을 위하여 우리 당이 일떠세운 문수물놀이장에 인민들은 백점만점을 매기고있다. 그 점수도 아수하게 여기는것이 인민의 마음이다.

글 본사기자 허명숙
사진 본사기자 리충성



무엇이나 다 별맛

해당화관과 창전해맞이식당에서 내온 급양봉사시설들에 대한 사람들의 호평이 이만저만 아니다. 급양봉사시설들의 형식이 독특하고 훌륭하며 봉사원들의 친절성에 더욱 정이 든다는것이다. 게다가 각종 음료와 음식들이 얼마나 감칠맛이 있는지 혀가 막 넘어가는것 같다며 웃음꽃을 피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습니다.》

해당화빵집을 찾은 사람들이 밖에는 물의 세계, 여기에는 빵풍경이 펼쳐졌다고 하는 말이 정말 신통하였다. 빵진렬대에는 모양이 각이한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가득 놓여있었다.

쟁반을 들고 빵진렬대사이를 부지런히 오가기만 하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어느것을 고를지 몰라 그런다는것이였다. 한가지씩 다 먹어보고싶은데 그러다 배가 견뎌낼것 같지 못하다는 그의 말에 사람들속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손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리향순동무가 빵집에서 만드는 꽈배기가 인기를 끌고있다고 말하였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말랑말랑한 꽈배기를 맛본 손님들이 가족들에게도 맛보이겠다며 저마다 더 요구하다나니 생산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는 형편이라는것이였다.

해당화맥주집에서는 탁상용맥주기계에서 직접 맥주를 뽑아 마시는 재미 또한 여간 아니라며 손님들이 기뻐하고있었다.

우리 해맞이청량음료점에서 만든 강냉이튀기를 누구나 다 좋아한다며 최은희동무는 봉사조건과 환경, 봉사진행의 전과정이 철저히 인민들에게 편리하게 되여있다고 말했다. 그러며 물놀이의 여가에 분점들에 찾아와 음료와 음식들을 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눈맛도 별맛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황홀한 물의 세계에 피여난 인민들의 웃음꽃이 해당화라는 그 이름에도 잘 어울리고 해맞이라고 불러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시는 강성부흥의 새 아침이 어려와 희망과 신심이 넘쳐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의미심장한것인가.

물놀이장의 크지 않은 급양봉사망들에서도 우리는 그려볼수 있었다.

우리 당이 마련해주는 이런 사회주의부귀영화의 별맛들을 끝없이 맛보게 될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본사기자

인민의 꿈 모두 꽃피리

문수물놀이장의 물결이 련일 출렁이고있다. 그보다 더 세차게 파도치는것은 세계일류급의 물놀이장에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들의 격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모든 혜택을 베푸는 정치로 되여야 합니다.》

만경대구역 선내동에서 살고있는 오현숙로인은 문수물놀이장에 와보고 깜짝 놀랐다. 세상에 이런 물놀이장도 있는가, 다기능화되고 최상급으로 꾸려진 물놀이장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지 와보니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드넓은 부지에 펼쳐진 문수물놀이장은 그냥 돌아보기만 하여도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높뛴다.

모든것이 눈부시고 아름답고 좋아서 물놀이장이 아니라 별세상에 온것 같다. 황홀하고 멋진 물미끄럼대와 수조들에서 난생처음인 희한한 물놀이를 할 때는 몸과 마음이 훨훨 날아가는듯 한 기분이다. 문수물놀이장에서의 휴식을 통하여 우리 당이 인민에게 안겨주려고 하는 사회주의부귀영화가 어떤것인지 잘 알고 그 진맛을 보았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아름다운 물놀이장을 인민에게 안겨주실수 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아래단위 로동자 리정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문수물놀이장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였다. 보기만 해도 희한한 물놀이시설에서 물놀이도 다양하게 하고 운동기재실에서 여러가지 운동도 마음껏 하였다. 실내체육관의 탄력망에 올라 없는 재간에 앞으로 돌기, 뒤로 돌기와 같은 재주넘기까지 하여 많은 사람들을 웃기였다. 소금한증, 마노한증을 비롯한 특색있는 여러 한증방들에도 빠짐없이 들어가보고 안마실에 가서 안마까지 봉사받았다. 행복에 겨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지만 생각할수록 가슴뜨겁다. 황금만능의 세상인 자본주의나라같으면 나와 같은 평범한 로동자가 이처럼 세계최상급의 물놀이장에서 휴식은 고사하고 거기에 들어갈수조차 있겠는가. 세계일류급의 물놀이장을 인민들이 리용할수 있게 한 사실만으로도 우리 당과 국가가 철저히 인민중심의 정치, 인민사랑의 정치를 실시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문수물놀이장에서는 로동당만세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온다.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학생들도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그들은 최근에 나온 시대의 명곡 《조국찬가》에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고 하였는데 문수물놀이장에 와서 그 구절의 참뜻을 실감하고있다, 문수물놀이장에 흐르는 휘황한 불빛과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은 우리 조국이 안고있는 무수하고 아름다운 꿈의 상징인것만 같다, 올해초까지만 하여도 이처럼 희한하고 황홀한 세계적인 물놀이장이 일떠서리라고 생각조차 못한 우리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걸음걸음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여 훌륭한 문수물놀이장이 수도의 대동강기슭에 기적같이 솟아나게 되였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배심과 내 조국의 국력이 이 문수물놀이장에 력력히 비껴있다, 문수물놀이장에 와서 우리 대학생들은 포부가 더 커지고 리상이 더욱 높아지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이 땅에서는 인민의 모든 꿈이 활짝 꽃피여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문수물놀이장에 넘치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담아싣고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노래가 높이 울린다.

…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
지리
…

본사기자

떠나고싶지 않은 곳

실내물놀이장이 들썩인다.

서로 물을 뿌려주며 즐겁게 물놀이를 하는 처녀들이며 물총을 내쏘면서 좋아라 깔깔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물미끄럼대를 타고내리던 사람들이 수조에 떨어지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며 물놀이장을 들었다놓는다.

머리에 백발을 얹은 늙은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웃음짓는 모습 또한 이채로운 광경을 펼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사회의 모든 물질적 및 정신문화적부의 창조자일뿐아니라 그 향유자입니다.》

물놀이를 한 후 사람들은 저저마다 2층에 있는 안마실을 찾는다.

얼굴에 함뿍 웃음을 담은 안마사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안마실은 온화하면서도 안정감이 들게 꾸려져있다. 안마사들의 친절한 봉사는 손님들의 기쁨을 더해준다.

안마가 끝나면 안마사들이 손님들의 소감을 묻는다. 그러면 모두가 한결같이 대답한다.

—정말 좋습니다. 물놀이장에 와서 안마까지 봉사받으니 몸과 마음이 다 거뜬해졌습니다.

온몸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이 잘되게 하며 안정을 주는 안마는 피로회복에 매우 효과적이다.

어느 한 단위의 일군인 장인철동무는 물놀이를 하고나면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는데 안마를 받으니 언제 그랬던가싶게 쭉 풀렸다고 웃으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안마사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안마를 받으니 어릴 때 등산갔을 때처럼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정말이지 문수물놀이장은 인민들의 편의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문화정서생활기지입니다.》

문수물놀이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질줄 모른다. 향유의 기쁨을 마음껏 맛볼수 있는 최상급의 물놀이장에 한번 오면 또 오고싶고 와서는 떠나고싶지 않은것이 사람들의 일치한 심정이다.

《몸과 마음이 거뜬합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사람들은 문수물놀이장을 떠나간다.

아름다운 래일을 마중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조경철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높은 실적과 학습강사의 역할

단천시 쌍룡협동농장 김기혁동무의 사업에서

단천시 쌍룡협동농장 제3작업반은 농장에서뿐아니라 시적으로도 소문난 단위의 하나이다.

지난 10여년간 매해 작업반앞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고 수십명의 농장원들이 조선로동당원으로, 농장의 초급일군으로 자라났다. 많은 농장원들이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녔고 작업반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성과에는 요인이 있기마련이다.

성과의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작업반장 황용근동무가 한 말이 참으로 인상깊었다.

《모든것을 결정하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작업반원들을 우리 당의 농업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학습강사동무의 역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기혁동무가 지난 시기 학습강사로 사업하면서 작업반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사실들을 여러가지 실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초급선전일군들은 우리 당사상사업방침을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직접 선전선동활동을 벌리는 전초병이며 정치활동가입니다.》

김기혁동무가 작업반학습강사로 사업을 시작한것은 지금으로부터 28년전이다.

당조직의 믿음과 기대속에 학습강사로서의 첫 자욱을 찍으면서 그는 하나의 원칙을 내세웠다. 학습강사로서의 자신의 사업실적은 작업반의 생산실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것이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언제나 실적이 올라가기마련이다. 그러자면 당정책의 선전자, 그 관철의 선도자인 학습강사인 나자신부터가 높은 실력을 지니고 작업반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런 각오를 안고 김기혁동무는 언제나 학습강사활동에 자기의 온넋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왔다.

김기혁동무의 학습강사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강의준비에 많은 품을 들이는것이다. 그는 언제나 학습제강을 받으면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작업반의 실정에 맞게 통속적이면서도 내용이 풍부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춘다.

언제인가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 잘 꾸려나갈데 대한 내용의 학습제강이 나왔을 때였다.

그는 제강의 내용을 자자구구 학습하면서 그것을 자기의것으로 완전히 소화하였다. 그런 다음 작업반의 실정과 결부하기 위하여 작업반마을을 한바퀴 돌아보았다. 어느 농장원의 집이 알뜰하게 꾸려지고 어느 농장원의 집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려지지 못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출연할 내용을 하나하나 되새겨보았다.

이렇게 품을 들인 강의가 작업반원들에게 큰 여운을 남긴것은 물론이다.

작업반원들은 그의 강의를 통하여 자기가 사는 마을과 일터를 잘 꾸려나가는것이 애국의 첫걸음으로 된다는것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작업반마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는데 한사람같이 발벗고나섰다. 작업반의 문화혁명결의목표수행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것은 그가 강의준비에 얼마나 큰 품을 들이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김기혁동무는 강의를 잘하자면 자신부터가 높은 실력을 지녀야 한다는것을 언제나 자각하고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학습강사활동에 필요한 도서라면 품을 들여가며 구입하였고 밤을 새워가며 탐독하였다. 그의 집에 있는 수많은 위대성도서들과 혁명전통교양자료집들, 수천개의 자료카드들은 그가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얼마나 애써왔는가를 증명해주고있다.

김기혁동무의 학습강사활동에서 다음으로 특징적인것은 작업반원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강의를 실효성있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론을 잘 활용해나가고있는것이다.

학습강사들이 지식이 많다고 하여 그것이 곧 강의의 실효로 되는것은 아니다. 강사가 체득한 리론과 지식이 대중을 깨우치고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데 참답게 이바지되도록 하자면 강의에서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김기혁동무는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든지 적중한 계기들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하면서 우리 당의 위대성교양에 언제나 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강의에서 문답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작업반원들의 능동적인 사고력을 계발시키는 한편 강의내용과 성격에 맞게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이룩되는 혁신적인 소식들과 국내국제정세자료, 귀가 솔깃하면서도 웃음을 주는 유모아들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강의를 흥미있게 진행하여 학습반성원들이 언제나 강사와 호흡을 함께 하면서 강의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고있다.

어느해 10월말 쌀로써 사회주의를 지키는 참된 애국농민이 될데 대한 내용의 강의를 마친 김기혁동무는 어느 한 농장원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올해 우리 작업반에서 경사지밭들에 강냉이영양단지를 못냈는데 그런 밭들에서는 수확고가 떨어졌다. 무엇때문인가.

그러자 그 농장원은 머리를 긁적거리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영양단지를 내지 못했기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김기혁동무는 주체농법의 우월성에 대하여 작업반원들속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며 다음해농사에서는 철저히 주체농법의 요구를 지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강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주체농법의 요구를 지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데 대한 그날의 강의는 실효가 컸다. 작업반원들모두가 과학기술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을 결심을 가다듬었다. 다음해부터 작업반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28년간 학습강사로 그가 걸어온 헌신의 날과 달들에 있은 이야기를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이렇듯 높은 실력과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하는 김기혁동무의 학습강사활동은 그대로 작업반의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김기혁동무의 학습강사활동으로 오늘 쌍룡협동농장 제3작업반 농장원들의 사상정신세계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작업반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김기혁동무는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의 영예를 지녔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감사를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본사기자 오철권

소중히 안고 사는 마음

원산시 봉춘동 7인민반 리철년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뜻깊은 전승 60돐을 앞둔 지난 7월 어느날이였다.

아들과 함께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를 안고 마식령스키장 군인건설자들을 찾아온 한 녀인이 있었다. 그가 바로 원산시 봉춘동 7인민반에서 사는 리철년동무였다.

군인건설자들과 같이 일도 하면서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를 안겨주는 이들의 모습은 군인건설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리철년동무가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을 위한 원호사업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결심을 굳히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그날부터였다.

그날 저녁 리철년동무의 집창가에는 밤이 깊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그는 어머니 한금주녀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래일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생각할 때면 이 나라 공민된 본분을 다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군 해요.》

《나도 같은 생각이다. 내 힘자라는껏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을 적극 원호하겠다.》

이때부터 리철년동무만이 아닌 온 가정의 마음은 마식령으로 달리였다.

마식령스키장 군인건설자들을 위해 신선한 첫물과일과 남새 등 원호물자를 마련하느라 리철년동무는 애써 노력하였다.

아들 광섭이와 함께 남모르는 밤길을 걸을 때도 많았다.

어머니 한금주녀성도 더 많은 집짐승을 길러 군인건설자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뛰고 또 뛰였다.

어느날 원호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휴식날도 마다하고 길을 떠나는 리철년동무에게 아들 광섭이가 이렇게 말한적이 있었다.

《어머니,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리철년동무는 《일없다. 이 어머닌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위한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신다고 생각하면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는구나. 광섭아, 이 길에 우리 가정의 행복도, 삶의 보람도 있는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주저없이 길을 떠났다.

광섭이의 마음속에는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려는 어머니가 더없이 돋보이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깊이 새겨졌다.

이렇듯 리철년동무의 마음속에는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드는 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갈 하나의 생각뿐이였다.

이런 충정의 마음을 안고 사는 리철년동무이기에 그는 티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누구보다 앞장서고있으며 오늘도 인민군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기 위해 남모르는 길을 걷고 또 걷고있다. 먼 후날에도 값높이 추억할 소중한 마음을 안고.

특파기자

계급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평원군 상송리당위원회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날로 악랄해지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투철한 계급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로동신문》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에 실린 계급교양자료들을 가지고 아침독보시간과 작업의 휴식시간들을 리용하여 계급교양을 활기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계급적자각을 최대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웅변모임과 복수결의모임도 널리 조직하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단위별로 계급교양실에 대한 참관도 준비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계급교양실에서 해설사업을 잘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 그를 통한 계급교양사업이 농장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되도록 하고있다.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 계급교양을 통하여 계급적원쑤들의 만행과 변할래야 변할수 없는 놈들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을 잘 알게 된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원쑤들의 머리에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맡은 일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한성문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2.8직동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호소문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탄부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막장들에 들어가 다양한 정치사업으로 탄부들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문에 제시된 과업들을 결사관철할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심어주고있다.

어느날 9갱 채탄5중대 막장에 들어간 초급당위원회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마식령에 아로새겨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자욱과 오늘의 분분초초를 놀라운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에 대하여 감동깊이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모두 값높은 삶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자고 호소하였다.

그에 고무된 탄부들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석탄증산을 위한 돌격전을 더욱 힘차게 벌리였다.

로농통신원 김청일

조선과 웰남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한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위대한 수령님께서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을 방문하신 55돐을 맞으며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웰남을 방문하신 5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55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웰남사회주의공화국(당시 웰남민주공화국)을 방문하신것은 조선과 웰남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과 웰남인민사이의 친선은 우리와 호지명동지사이의 두터운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맺어진것으로서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웰남을 방문하신 주체47(1958)년 11월 28일은 웰남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경사의 날이였다.

그 시기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 나라에 모시려는것은 웰남인민의 절절한 소망이였다. 이로부터 웰남의 호지명주석은 주체46(1957)년 7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 나라를 방문하여주실것을 간절히 요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웰남방문과 관련하여 웰남의 여러 신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활동략력을 소개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솔하시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의 웰남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11월 28일 오전 11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신 특별비행기가 하노이비행장에 도착하자 환영군중들속에서는 만세의 환호성이 높이 터져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비행기에서 내리시자 귀여운 어린이들이 그이께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비행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웰남방문을 환영하는 성대한 의식이 진행되였다.

범문동수상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연단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환영연설을 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웰남인민과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친근한 인사를 드리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존경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정부대표단의 웰남방문이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과 호상협조관계를 더한층 강화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연단에서 내리시여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범문동수상과 함께 차에 오르시였다. 환영일색으로 아름답게 단장된 하노이시는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수많은 각계층 웰남인민들이 연도에 떨쳐나와 꽃묶음과 두 나라 기발을 높이 흔들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지명주석과 뜨겁게 상봉하시였다.

이날 하노이시 바딩광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웰남방문을 환영하는 성대한 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호지명주석과 함께 주석단에 오르시자 7만명의 하노이시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며 연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웰남에서 8월혁명승리와 웰남민주공화국의 창건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웰남에서 평화가 회복된 후 웰남인민이 전쟁의 피해를 기본적으로 복구하고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웰남인민과 함께 나아갈것이며 웰남인민의 믿음직한 전우로 남아있을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환영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지명주석이 연설하였다. 그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웰남인민의 가장 친근한 벗이며 영웅적조선인민의 영명한 수령이시라고 말하자 군중들은 더욱 우렁찬 목소리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미제를 타승한 기세로 지금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있습니다. 우리도 조선형제들과 같이 천리마를 타고 달려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는데 나는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조선형제들과 경쟁을 하자는것을 제의합니다.》라고 하면서 호응하는 군중들에게 《경쟁은 웰남인민과 조선인민의 단결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단결은 힘이다》라는 노래를 다같이 부르자고 하며 자기가 직접 선창을 떼였다. 군중들은 우렁차게 노래를 불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흔들어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였다.

이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범문동수상이 차린 성대한 연회에 초대되시였다.

11월 29일 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8년간의 항전시기에 하노이시방어전투에서 희생된 1320명의 웰남애국투사들이 안치되여있는 렬사탑을 찾으시였다. 추도곡이 엄숙히 주악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조국을 위하여 희생된 렬사들의 위훈은 영원히 빛나리라》라는 글이 씌여진 붉은 댕기가 드리운 화환을 진정하시고 묵상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청사에서 호지명주석과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담에서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다 듣고난 호지명주석은 정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을 통이 크게 벌려놓으시고 누구도 따를수 없는 완강한 의지와 혁명적전개력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대담하게 밀고나가 기적을 창조하고계신다고 감탄하였다. 두차례의 회담을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이날 오후 주석부에서 진행된 두 나라 정부대표단의 회담에 참석하시였다. 회담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심취되여있던 범문동수상은 감격과 흥분에 젖은 목소리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힘의 원천을 가져다주시였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이 조선에서 배울것이 많다고 거듭 말하면서 조립식건설, 용광로건설, 광산개발 그리고 광산기계, 관개시설용뽐프, 전동기의 생산과 같은 경험들을 배워줄것을 정식으로 제기하였다.

그의 제기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웰남측에서 희망하는것을 다 보여줄수 있으니 대표단을 조선에 보내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문기간 남딩방직공장과 하노이시교외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을 참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남딩주와 남딩시당 및 정권기관 책임일군들, 이곳 일군들과 공장종업원들이 따뜻이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녀성로동자들이 꽃다발을 드리고 소년단원들이 붉은넥타이를 매여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배인으로부터 1만 8 000여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매일 11만m의 천을 생산하고있으며 평양방직공장(당시)과 친선적인 증산경쟁을 벌리고있는 이 공장의 연혁을 들으신 다음 생산현장을 돌아보시였다. 공장방문을 기념하여 공장지배인이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 공장에서 짠 비단천에 《웰조 두 나라 인민사이의 친선단결 만세!》라고 수놓은 축기를 드리였다.

방직공장참관을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노이시교외에 있는 농업협동조합과 썬떠이에 있는 웰남인민군 륙군군관학교를 방문하시였다.

이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정중히 맞이하기 위하여 전날 저녁부터 길을 닦아놓고 《웰조친선의 길》이라고 이름붙인 연도에 줄지어 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도착하시기를 가슴들먹이며 기다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교에 도착하시여 교직원, 학생들이 조선말로 터치는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숙소와 교수교양자료가 전시된 교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모든것이 훌륭히 잘 갖추어져있다고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호지명주석과의 회담이 또다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협동화와 수공업 및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경험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남조선정세에 대하여 알기 쉽게 말씀하시였다. 호지명주석은 그처럼 귀중한 경험을 말씀해주신데 대하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조선의 경험을 많이 배워 조선을 따라가겠다고 흥분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조선당의 정책은 모든 점이 명백하고 정당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조선당을 계속 따라배워야 한다고 자기 나라 일군들에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웰남방문은 조선과 웰남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방문으로 력사에 기록되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조선과 웰남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더욱 강화발전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이 어려웠던 때에도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 웰남인민이 필요한것이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으시였다. 이것은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적우의에 기초하여 웰남의 호지명주석과 맺으신 각별한 친분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웰남과의 관계발전을 세계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발휘하실수 있는 참다운 국제주의의 발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주체83(1994)년까지 60여개의 웰남대표단들을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웰남혁명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주시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과 웰남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세계혁명의 탁월한 수령, 정치원로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100% 그대로 계승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웰남과의 관계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주체96(2007)년 10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농 득 마잉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농 득 마잉총비서의 상봉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력사적인 리정표로 되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선대수령들께서 반제자주와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한길에서 그 누구도 허물수 없는 동지적관계를 맺으시고 공동의 적을 반대하는 성전과 시련의 나날속에서 강화발전시켜오신 웰남과의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선대수령들의 숭고한 뜻과 구상대로 계승발전시켜나갈 의지로 충만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웰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으며 호지명주석의 위업을 받들어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웰남인민의 투쟁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으리라고 확신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끊임없이 공고발전하여온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그 어떤 정세변화에도 구애됨이 없이 선대수령들의 념원에 맞게 계속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라명성

조선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외국인사들이 강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사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끊임없는 성과들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대표단 단장 아나똘리 돌가체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힘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다.

조선인민은 거창한 전변의 력사를 창조하고있다.

대표단 단원 아르쫌 쌈쏘노브는 조선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조선에서는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다.

령도자가 위대하고 일심단결의 힘이 있어 조선은 자기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부흥하는 경제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리라는것을 확신한다.

로씨야련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단원 예브게니 에르몰라예브는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조선인민은 불굴의 정신력을 지니고있다.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힘이 있기에 조선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일심단결은 핵무기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몽골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단장 느. 볼드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방문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에 대한 조선인민의 끝없는 신뢰심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뜻과 정으로 맺어진 혼연일체는 조선에서만 볼수 있다.

TV를 통하여 혁명학원 원아들의 볼도 다독여주시고 손도 잡아주시는 원수각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옵고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단결된 불패의 힘이 있기에 조선은 언제나 이길수 있었다.

조선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영원히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중국 조어도주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 배격

중국외교부 대변인 진강이 24일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조어도주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배격하였다.

그는 중국정부의 동해반항공식별구역설정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되는것으로서 나라의 주권과 령토 및 령해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어떤 특정한 국가나 목표를 겨냥하지 않고 해당 공간령역에서의 자유로운 비행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조어도와 그 부속섬들은 중국의 고유한 령토이며 중국측은 령토주권을 견결히 수호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현재의 조어도정세는 전적으로 일본측의 그릇된 행동으로 하여 초래된것으로서 미국은 절대로 어느 한쪽의 편역을 들지 말아야 하며 부당한 발언을 삼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자기 나라 외교부가 미국측이 즉시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력강화를 호소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라울 까스뜨로가 최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적들의 그 어떤 침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자기 식의 전략과 전법을 계속 연구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인민들이 민방위훈련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쟁을 방지하는데 모든 원천을 동원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아프리카분쟁문제의 자체해결을 주장

로씨야련방평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이며 아프리카나라들과의 협조문제담당 로씨야 대통령특사인 미하일 마르겔로브가 18일 한 담화석상에서 아프리카의 분쟁문제해결방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로씨야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아프리카나라들과의 정치적협조와 원료 및 하부구조개발분야에서의 경제적협조에 관심을 가지고있다고 말하였다.

아프리카에 아직 불안정요소들이 많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정치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아프리카에서 모든 분쟁문제는 대륙나라들자체의 노력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 침체

미국의 한 경제단체는 최근 올해 10월에 전국적인 살림집판매량이 9월에 비해 3.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일용품소매업체들에서 10월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또 줄어들어 련속 4개월째의 감소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도청행위 폭로

네데를란드신문 《엔아르씨》가 23일 자기 나라를 대상으로 감행한 미국의 불법무도한 도청행위를 폭로하였다.

신문은 이전 미중앙정보국 요원 스노우덴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하여 미국이 1946년부터 1968년까지 이 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도청행위를 감행하였으며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악화될것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저들의 정탐행위를 숨겨왔다고 까밝혔다.

신문은 또한 미국이 1946년부터 동맹국인 벨지끄와 도이췰란드, 프랑스 등 서유럽나라들을 대상으로 도청행위를 하였으며 2012년 중엽에는 세계적범위에서 5만여대의 콤퓨터를 공격하여 정보를 빼낸데 대해 폭로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신문

우리 탁구선수들을 소개

중국의 《인민일보》 24일부가 《탁구계에서 새로 두각을 나타내고있는 우수한 선수들이 손잡고 월계관을 따내다》라는 제목으로 평양주재 특파기자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된 제52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중국의 천진에서 진행된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김혁봉, 김정선수들이 맞다든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영예의 1등을 쟁취한데 대하여 쓰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승을 쟁취한 두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 조선국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눈물을 흘리는 김정선수는 많은 인터네트가입자들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처녀》로 평가되였다.

조선정부는 그들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으며 새 살림집도 안겨주었다.

김혁봉은 자기와 김정선수가 받아안은 사랑이 너무도 크다고 하면서 그 사랑에 꼭 보답하겠다고 말하였다.

지금 그들은 2016년 올림픽경기대회준비에 여념이 없다.

파키스탄에서 반미시위

파키스탄의 페샤와르에서 23일 미군의 야만적인 무인기공습만행에 항의하는 반미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격노한 시위참가자들은 반미구호들을 웨치면서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의 보급로를 봉쇄하고 무인기공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란에서 반미시위

지진

중국의 길림성 송원시 챈궈얼뤄스몽골족자치현에서 22일과 23일 리히터척도로 5~5.8의 지진들이 련이어 발생하였다. 10월 31일 첫 지진이 발생한이래 23일현재까지 이곳에서 총 25만 7 702명이 피해를 입고 6만 7 246명이 긴급소개되였으며 6만세대의 살림집이 파괴되였다.

피해지역들에서 긴급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큰물

타이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로 피해가 났다.

8개 주에서 10만명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수백개 마을의 주민들이 소개되였다.

피해지역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

《만민평등》, 《만민복지》를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썩어빠진 진면모가 날이 갈수록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만연하고있는 실업위기와 각종 범죄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생존을 시시각각 위협하는 고질적인 《악성종양》으로 남아있다.

최근 미로동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8월에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의 수가 1 130만명에 달하였다고 하면서 장기실업자수만 하여도 410만명을 헤아리고있다고 밝혔다.

올해 3.4분기에 영국과 뽀르뚜갈에서 실업률은 각각 7.6%, 15.6%를 기록하였으며 9월말까지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실업자수는 2 687만 2 000명으로 증대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있는것은 극소수 자본가들이 심각한 경제위기의 출로를 일자리를 대폭 줄이는데서 찾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재편 다바꼬, 파나소니크, 씨멘스, 알카뗄 루쎈뜨 등 일본과 도이췰란드, 프랑스의 많은 회사들이 최근 앞을 다투어 해고선풍을 일으키고있다.

이와 같은 반인민적인 긴축조치로 하여 생존수단마저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빈궁의 나락에로 굴러떨어지고있다.

현재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8 400만명이 빈궁에 시달리고있는 속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빈궁자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는 또 하나의 불치의 병으로 만연하고있다.

범죄의 《왕국》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총기류범죄사건이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일 미국의 휴스톤시에 있는 한 아빠트에서 백주에 무장한 범죄자가 사람들을 목표로 무턱대고 총기를 휘둘러대는 바람에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1월에 들어와 현재까지 미국의 곳곳에서 이러한 류혈적인 총기류범죄가 9차례나 감행되여 50여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밖에도 22년전 당시 30대였던 남성이 4살 난 자기 사촌녀동생에게 성폭행을 가한 후 그를 무참히 살해한 범죄가 최근에 밝혀진 사실과 얼마전 한 교원이 15살 난 학생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 등은 범죄의 란무장으로서의 미국의 전모를 낱낱이 드러내보이고있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살인, 마약밀수 등 각종 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일본 도꾜에서 21살 난 청년이 무턱대고 녀중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는가 하면 뛰르끼예의 남부지역에서는 빚문제를 놓고 두 가족사이에 벌어진 싸움끝에 4명이 죽었다.

또한 이딸리아에서는 대규모마약밀수집단이 적발되여 200여kg의 헤로인과 500kg의 마리후아나가 압수되고 71명의 마약관련 범죄자가 체포되였으며 오스트랄리아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색정범죄를 일삼던 65명의 범죄자들이 붙잡혔다.

제반 사실은 자본주의사회야말로 온갖 사회악이 란무하는 사람 못살 세상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뿌리채 뽑아버려야 할 미국의 세계제패야망

최근 워싱톤에서 열린 아메리카국가기구회의에 참가한 미국무장관 케리가 외교정책과 관련한 연설을 하였다.

여기서 케리는 미국대외정책의 기초적리념의 하나로 되고있던 《몬로주의의 종식》을 선포하였다.

미국의 5대대통령이였던 제임스 몬로가 1823년 12월 국회에 보낸 교서에서 제창한 몬로주의는 거의 200년에 걸쳐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초로 되여왔다.

당시 몬로는 《아메리카대륙은 유럽나라들의 장래의 식민지대상이 될수 없으며 유럽나라들은 아메리카대륙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아메리카나라들은 리해관계의 공통성이 있으며 아메리카사람을 위한 아메리카가 되여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이것은 인디안들의 피바다우에 나라를 세운 미국이 라틴아메리카대륙전체에 대한 독점적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 기도의 산물이였다.

몬로주의를 내들고 미국은 세기를 이어가며 내정간섭과 경제문화적침투, 령토강탈 등 아메리카나라들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였다.

수세기전부터 유럽의 식민지제국들과의 피비린 쟁탈전과 남북전쟁을 통해 땅을 넓히고 지배령역을 확장한 미국은 20세기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간섭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다.

그러한 미국이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몬로주의의 종식》을 운운하고있다. 이번에 케리는 교활하게도 《모든 나라들은 서로 평등한 관계속에 책임을 나누고 안보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눅거리최면술을 썼다. 모든 아메리카나라들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하며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것이다. 거기에 속을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미국이 몬로주의의 종식이요 뭐요 하며 수선을 떨고있는데는 음흉한 술책이 깔려있다.

저들스스로가 지배주의적인 아메리카정책의 파산을 인정할수밖에 없게 된 가긍한 처지가 미국으로 하여금 약바른 수를 쓰게 한것이다.

《아메리카사람을 위한 아메리카》라는 설교가 결국 《미국을 위한 아메리카》를 의미하는것이였음을 력사는 낱낱이 보여주었다.

오랜 기간 미국의 지배밑에서 수난을 겪어야 했던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통하여 독립과 자주권을 쟁취하였다.

이 지역에서 20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멍에를 벗어버리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다.

세계제패전략, 특히 몬로주의에 기초한 아메리카지배정책은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을 더는 수습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게 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미자주적인 정권들이 출현하고 지역의 나라들이 단합된 힘으로 미국에 맞서나가고있다.

꾸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꽈도르, 니까라과 등 많은 나라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반미자주정책을 실시하여 이 지역에 미국이 더는 발을 붙일수 없게 하고있다.

지역나라들을 예속의 올가미에 단단히 비끄러맸던 아메리카국가기구가 미국의 강권과 독단을 단죄규탄하는 마당으로 변해가고있다.

2011년말에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국가공동체가 창설된것은 미국의 아메리카전략—몬로주의의 총파산을 예고해주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미국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가고있다. 자주권존중과 호상협조의 원칙에서 여러 나라들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분야에서 협조를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라틴아메리카지역을 저들의 영원한 《세습령지》, 《고요한 뒤동산》으로 만들어 독점적지배를 유지하려던 미국의 야망은 망상으로 되고말았다.

몇해전 미국의 어느 한 잡지는 이러한 현실을 념두에 두고 《미국이 근 2세기동안 제창해온 몬로주의는 완전히 실패하였다.》, 《제임스 몬로는 무덤속에서 울고있을것이다.》라고 야유하였다.

미국으로서는 더이상 몬로주의를 제창할 체면도 용기도 가질수가 없게 되였다.

하지만 몬로주의라는 지배주의리념의 포기는 결코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패권적야욕을 버렸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이 력대로 추구해온 로골적인 강경정책과 교묘한 유화정책들은 모두 본질에 있어서 이 나라들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것이였다.

랭전의 종식을 떠들면서 중동에서 《반테로전》의 서막을 열었듯이,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고는 뒤돌아앉아 핵무기현대화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듯이 미당국자들이 《몬로주의 종식》을 떠벌이지만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지배야망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있다.

《몬로주의의 종식》을 선포한 미국의 속심은 명백하다.

라틴아메리카지역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더는 로골적으로 실현할수 없게 되자 가면을 바꾸어썼을뿐이다. 승냥이가 양가죽을 뒤집어썼다고 하여 양이 되는것은 아니다.

세계가 오랜 세월 뼈저리게 체험해온것은 미국의 침략적본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이다.

미국이 가면을 바꾸어쓰는것으로 각성된 세계인민들을 절대로 속일수 없다.

미국은 몬로주의가 아니라 지배주의, 패권주의, 세계제패야망을 버려야 한다.

리철혁

ㄱ-31186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